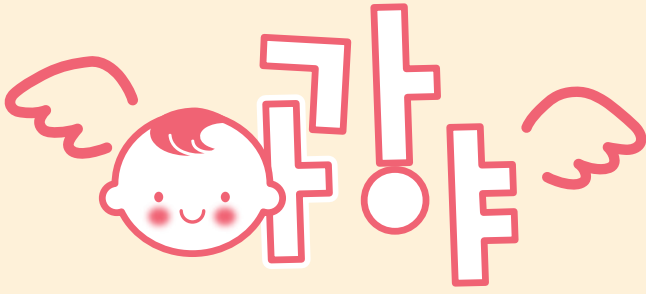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SUBFERTILITY FAMILY



# 제8회 난임가족의 날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15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공동주최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SUBFERTILITY FAMILY



사단법인  
한국보건정책연구원

후 원



보건복지부





## 난임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난임은 임신이 조금 늦어질뿐, 치료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치료 후에 임신이 안될까 조바심을 내거나  
몇 번의 실패에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의사와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난임을 제대로 알면  
자신 있게 임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 난임을 알면 임신이 보입니다

난임극복을 위한 그레이트맘 캠페인은  
내 집 앞 큰 병원 마리아병원이 함께 합니다

[www.mariababy.com](http://www.mariababy.com)



### 차례

#### Intro

인사말 ..... 06

축사 ..... 10

#### People & Family

난임성공수기공모당선작 ..... 18

#### Activity

2021년 단체 주요 활동 .....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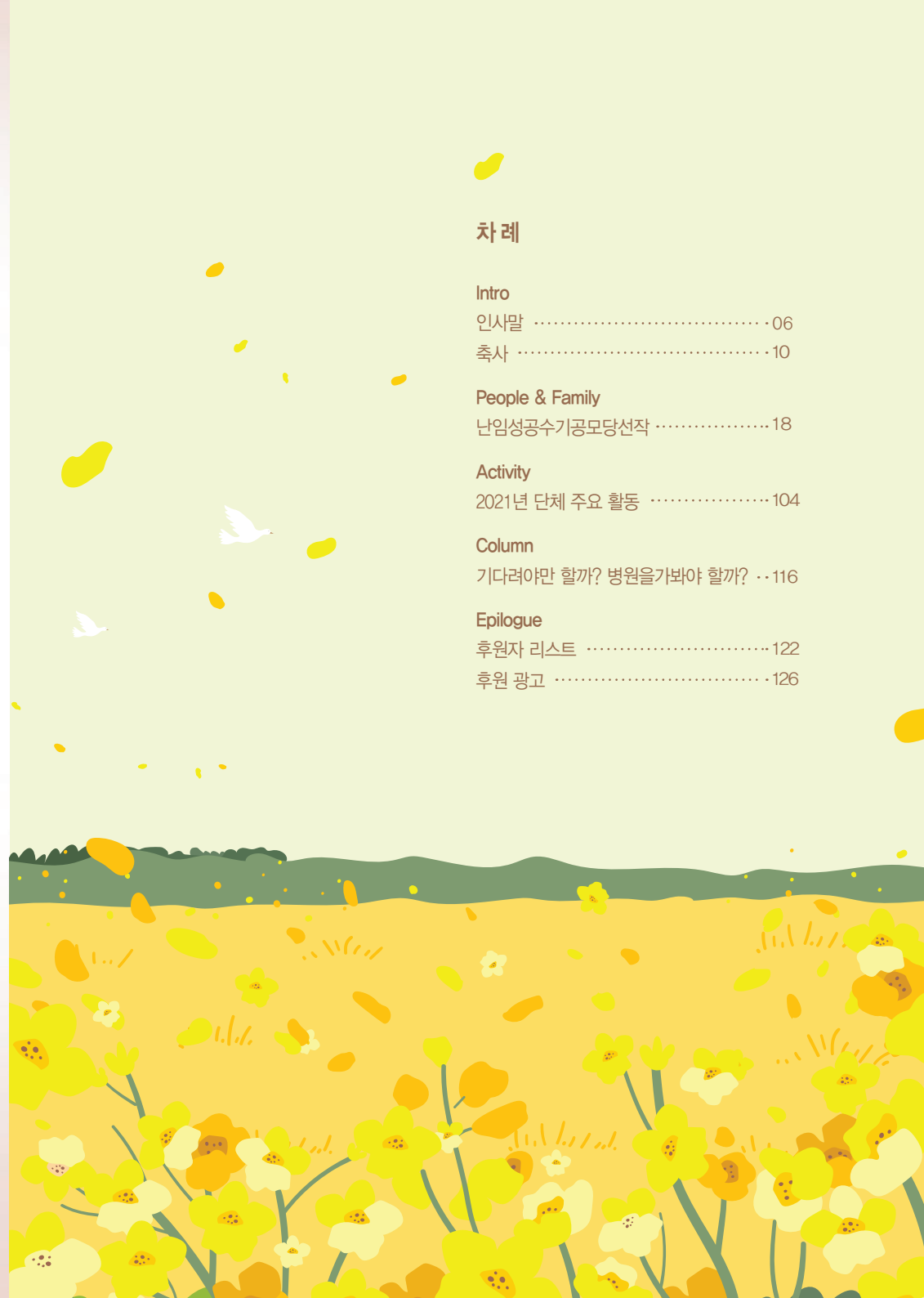
#### Column

기다려야만 할까? 병원을가 봐야 할까? ... 116

#### Epilogue

후원자 리스트 ..... 122

후원 광고 ..... 126



너에게 꽃이다

강원석

마음을 접고 접어  
꽃 한 송이 만들고

사랑을 품고 품어  
향기 한 줌 모으고

두 손에 가득 담아  
너에게 주느니

꽃처럼 피고  
꽃처럼 웃어라

세상은 온통  
너에게 꽃이다

출처 : 시집  
〈꽃잎을 적신 이슬을 모아〉



Intro

| 2021년 아가야 |

인사말 ..... 06

축사 ..... 10



## 대표 인사말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박 춘 선

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 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 낳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입니다. 어느덧 '제 8회 난임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맞이하게 되어 설레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2006년 이전만 해도 난임의 문제는 정부조차도 인식이 부족했던 탓에 '불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저의 민원은 매번 거절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순을 고쳐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무모한 도전을 하며 2003년 '아가야'(www.agaya.org)를 결성하게 되었고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왔던 난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온 힘을 다해 개선시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6년 3월 정부난임부부지원사업, 2012년 '난임' 용어의 법 개정 성과, 2017년 10월 건강보험적용 도입 및 확대개선, 2018년 난임휴가제의 성과 등은 본 단체가 제도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첫 아기를 갈망하는 난임부부의 아이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병원, 기업을 설득 참여케 하여 2008년 10월부터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과 심리정서회복을 위한 난임극복 자조모임

교육 등을 통해 1600명의 참여와 163명의 신생아가 탄생토록 하는 데 국가의 출산정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한 때 난임 부부로 살아오면서 그간 겪었던 상처와 편견 때문에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역척스러움으로 19년간 난임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고 늘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모 기사에 의하면 2006~2021.5월까지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219,257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소중한 아가들을 탄생시킨 그 증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처럼 '진심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난임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선(善)의 공동체가 서로 공감하고 협력·연결해나가야만 좋은 환경이 되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 위한 난임부부의 노력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지치지말 것이며 언제나 주먹 불끈 쥐고 화이팅 하십시오^^ 난임극복 종착역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도전과 꿈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된다.된다. 꼭! 된다.'

'난가연이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 | 원장 인사말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장  
류 희 근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함께하는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원장 류희근 입니다.

먼저 '제8회 난임가족의 날'을 준비해주신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박춘선 회장님과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은 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나마 '나눔'의 실천을 함께하고자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7년째 난임가족의 날 행사를 공동주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이 & 가치 의미 있는 일들을 꾸준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시대현실을 반영할 때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닌 상징성 있는 단체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은 미래도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전문가인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도움으로 난임 부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임신과 출산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때 매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8회 난임가족의 날' 생명사랑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한층 더 난임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든 난임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제8회 난임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난임극복으로 임신성공 수기에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사를 위해 애쓰신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분들과 난임가족 여러분들께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원장 류 희 근

축사



보건복지부장관  
권 덕 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제8회 난임 가족의 날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참석해 주신 모든 난임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난임은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의 문제이면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매년 난임 진단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와 가족을 돕고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이 전액 비급여로 이뤄지던 2017년 이전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조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는 난임 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편적인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난임시술의 범위와 비용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시술정보 수집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부부에게는 시술 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중산층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시술비용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에 대한 시술비 지원횟수를 현행 각각 7회와 5회에서 9회와 7회로 늘리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현행 30~50%에서 일률적으로 30%까지 경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의학적·심리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안동의료원에 경북권역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중앙과 권역에 총 6개소의 센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난임가족 여러분!

난임부부는 누구보다도 임신·출산에 의지가 강한 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난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없애고, 난임부부가 처한 사회·문화·의료 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여러분께서도 정부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8회 난임 가족의 날” 행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만큼은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보건복지부  
장관 권 덕 철

## 축사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 서울송파병  
국회의원 남 인 순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풍성한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만추의 계절에 개최되는 「제8회 난임가족의 날」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등 어려움 속에서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박춘선 회장님을 비롯한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과,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난임가족의 날’은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자녀 둘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의미로 11월 11일을 창안하였으며, 난임에 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난임가족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한해 난임부부의 팍팍을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긴 성공수기와 영상을 통해 이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인데, OECD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구의 자연증가 마이너스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2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난임으로 치료를 받은 난임부부가 지난해 22만 9,694명(여성 15만2,330명, 남성 7만9,36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기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정책적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줄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애써왔습니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치료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하여 난임치료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

전한 시술이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대상 연령과 횟수를 상향조정하며,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난임치료시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왔습니다.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51만 4,624명이 1조 256억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는 13만 712명이 3,072억원의 급여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 난임부부 상담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난임가족연합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서적 지지체계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시술에 여러 번 실패한 난임부부에게 조력과 자조모임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와의 연계·협조를 통하여 난임부부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난임가족 여러분께서 한국난임가족연합회로 뽕뽕 뭉치고, 이렇게 ‘난임가족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며,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임을 극복하는 데에는 경제적, 신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이 단순히 저출산 해법만이 아니라 난임 가족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을 비롯한 난임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국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애써왔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을 결성하여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저출생 및 인구절벽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족을 영위하려는 난임가족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여러분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국회 차원에서 더욱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뜻 깊은 ‘제8회 난임가족의 날 기념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점차 추워지는 날씨,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남 인 순

## | 축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운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운천입니다.

제8회 난임가족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을 만나고자 하는 난임가족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박춘선 회장님과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딩크족이 확산되며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기조로 자리잡은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락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전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된뉘꼭 헬스케어”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난임가족이 아기를 만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된뉘꼭 헬스케어는 ‘된다 된다 꼭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겪는 난임부부에게 8주 동안 교육·정서적 지지를 조력하며 아이소망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매년 난임가족의 날에 ‘된뉘꼭 헬스케어’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며 난임을 극복한 부부를 축하하고, 다른 난임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된다 된다 꼭된다!’는 아기와 만나고픈 모든 난임가족의 염원이 담긴 문장입니다. 반드시 꼭 될 것이라 믿음과 간절함이 함께 한다면 아기라는 선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지금, 아기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 또 다른 어려움에 지친 난임가족을 위해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난임부부와 가족이 아기라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동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고문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난임가족을 위한 정책과 입

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운천





# • 아가야

## People & Family | 난임성공수기공모당선작 16편 |

'7전8기' 눈물겨운 노력으로 천사를 만나다 .....	18
사랑하는 아가야 어디 갔다 이제 온거니?!! .....	24
다시 품은 아이 .....	30
“난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	34
누구나 난임이 될 수 있다. ....	38
죽음에서 생명으로 .....	44
엄마라는 이름의 선물 .....	50
튼튼한 내 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	54
된된꼭성공수기공모전 .....	56
난소기능저하의 일란성말둥이의 기적! .....	60
언젠가 꼭 만나 .....	64
포기하지 않으면 꼭 됩니다. ....	70
다시 또 한 번 더 .....	74
12번의 두드림, 마침내 나에게 파랑새가 날아왔다 ! .....	80
세 번의 시험관시술, 한 번의 기적! .....	88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찾아온 아기 천사 .....	92



## ‘7전8기’ 눈물겨운 노력으로 천사를 만나다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 장OO

### ‘난임’ 그 역경의 서막

저는 올해 42세로 결혼 9년차입니다. 32년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2013년 남편을 따라 울산에서 6년 정도 살았고, 2019년 경기도, 2021년 지금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힘든 난임생활의 이동경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지속되다가는 도저히 시댁이 있는 지방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결혼 당시 행복하게 살겠다는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난임’이라는 단어는 저와는 관계가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정 엄마와 여동생도 금방 임신과 출산을 하였기 때문이고, 저 역시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동서와의 악연

시댁은 시아버님이 5대 독자로서 아들이 아주 귀한 집안으로, 남편 밑으로 시누이, 시동생이 있습니다.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모두 결혼 1년 안에 성사가 되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6살이 적은데, 혼전임신으로 저보다 1달 먼저 결혼하더니 곧바로 첫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동서는 둘째, 셋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난임의 고통으로 가는 서막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동서, 시누이와 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로서 평소 두루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는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저를 테스트하는 것인지, 자기가 둘째 아이를 계획한다면 저에게 배란 테스트기 사용법을 물었고, 저는 사용법을 가르쳐 주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저는 병원에 찾아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5월에 제가 또 계류유산으로 수술 한 그날, 동서는 둘째 아이 돌잔치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허리 통증과 출혈 때문에 둘

째 아이 돌잔치에는 도저히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과 동서는 제가 동서 둘째 아이 돌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제가 동서 둘째 돌잔치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함이 있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죄인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동서는 둘째 돌잔치 끝내놓고는, 자신은 셋째 계획 없으니 저를 위로한답시고 마음 편하게 시험관 시술을 하라고 오히려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늘 동서가 둘째 생기기 전에, 동서가 둘째 출산 전에, 동서 둘째 백일 전에, 둘째 돌 전에 임신을 꼭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강박관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시험관 수술을 진행하면서 피검사 실패를 한 당일,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또다시 동서의 세 번째 아이의 임신 8개월의 소식을 시부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추석 제사에 참석할 때도 몰랐던 동서의 셋째 아이 임신... 그때가 아마 임신 8개월쯤 되었을 겁니다(동서는 평소 푸짐한 체격으로 임신이어도 배가 평소와 비슷해서 크게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전화로라도 동서에게 전화하여 축하하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첫째 며느리로서 그렇게 시술을 해도 안 되는데, 동서는 너무나 쉽게 아이를 출산하고 알게 모르게 저를 무시하였습니다.

‘나도 이번에 유산이 안됐으면 아이를 출산 할 수 있었는데’...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건, 그와 같은 동서 셋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저희 부부한테만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셋째 계획이 없다고 저에게 말하면서 편하게 시술하라는 동서... 그것도 모자라서 둘째 아이 돌잔치 할 당시, 동서는 셋째 아이 임신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저에게 상당히 서운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제사 때에 자기가 임신을 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예 형님인 저한테 한 마디 연락도 없이 제사 참석도 안하면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동서... 너무나 얄밟고 화가 났지만, 이 집안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저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장기간 쉬지 않는 시술로 인한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앞으로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동서의 얼굴을 봐야 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들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심지어 시험관 시술을 실패 할 때마다, 하다못해 어디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동서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될 때마다 공교롭게도 꼭 제사나 명절 등이 앞뒤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더 힘들었던 것은 동서를 또다시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싫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더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과 5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시댁 방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 전까지는 제가 공황장애가 생기면서부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근 3년 정도 매일 방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댁과 동서와의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서 얼굴을 보면서 힘들어 하는 것이 싫어서, 신랑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지만, 시댁을 거의 방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인 울산에서 6년을 살다가, 시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경기도로 이사한 후, 다시 제 고향인 서울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러기까지 장장 9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공황장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되 게 된 난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공황장애'라는 것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과정**  
 배란유도 6회 / 인공수정3회 / 시험관 21번의 도전 끝에 16번의 이식과, 자궁경시술 4 회, 화학적유산 2회, 자궁유착수술 3회 그리고 소파수술 4회를 장장 7년에 걸쳐 시험관 병원에서 시술을 하였습니다.

**'난임가족연합회'와의 인연**

저는 일전에도 여러 차례 난임가족연합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임은 제게 참으로 많은 위안이 되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그냥 개최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난임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미래의 산모들에 게 정신적으로 정말 큰 위안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육아를 하면서 잠시도 틈이 없이 바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난가연'모임에 참석했을 때, 대상을 받았던 수상자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 어서 큰 힘이 되고 다시금 저를 일어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미 신설, 상봉, 대구마리아 등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들을 다니면서, 근 7년째 더 이상 성공의 기약이 없는 난임과 싸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기진맥진하고 남은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냥 오기로 버텨보자고 생각 했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시술해야 한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포기상태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도 솔직히 저는 제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상 수상자의 이야기가 저에게 힘을 주었고, 이제 난임병원 다니는 것을 그만하자고 했던 가족들과 남편마저도 저를 포기한 것 같았는데, 작년 '난임의 날' 행사에 참석했을 때 회장님과 국장님이 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 게 아직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기도에 있는 M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양OO 선생님을 만나면서 자궁유착수 술을 하고 이식을 하였고, 꿈에도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임신을 여러 차례 하면서 항상 7-8주에 고비를 맞으면서 유산을 하였었는데, M병원 병원에서 이식을 하면서 양OO 선생님이 저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여러 번의 소파수술 때문에 자궁이 많이 약해져서 조산의 위험을 안고 임신 18주에 한강OO병원에서 '자궁경 부봉축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계속 누워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그렇게 그리던 지금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7전8기’ 눈물겨운 노력으로 천사를 만나다.

그 동안 장장 7년이라는 난임생활을 회고해 볼 때, 정말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앞서 동서와의 악연에서 언급했듯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것을 피하려고, 몸이야 어찌 되건 말건 최대한 강한 처방을 받아서라도 빨리 임신과 출산이라는 결과를 보고 싶어서, 정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천사를 만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만난다는 것보다는, 이미 출산의 성공과 실패는 의미가 없고, 그저 이왕 이렇게 된 것 폐경이 될 때까지, 더 이상 시험관 시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후회만이라도 하지 말자! 그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공황장애가 악화 되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난임부부들이 소망하는 임신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유산, 조산, 공황장애의 고통으로 임신기간 내내 불안하고 무서운 나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 그 7년의 고통스런 생활은 거의 생각이 나지 않고, 육아를 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여러분!!

모두들 각자 처한 환경들이 다르지만, 모두가 난임이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실을 모두 같을 것입니다. 식상한 소리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을 꼭 이룰 것입니다. 저 역시 33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34살부터 난임의 어려움에 뛰어들면서 42세에 천사를 만나기까지 정말 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천사를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진심으로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이런 소감을 작성하게 지원해 주신 ‘난임가족연합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이하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이 행사가 향후에도 무한한 발전

## 사랑하는 아가야 어디 갔다 이제 온거니?!!

우수상(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상) - 정OO

2020년 11월 18일..... 아직도 그 긴장감 그리고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 7년 동안의 기다림 15번의 시험관 이식 등 그간 아이를 만나기 위해 했던 고생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치며 벽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한없이 흘러내리던 그 뜨거운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작고 꼬물거리는 아이가 가슴에 안기는 순간 이 고생길을 함께한 아이에게 “엄마에게 오느라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었다.

2013년 4월 늦은 결혼 후 어차피 낳을 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던한 노력을 하였지만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아이 소식은 오지 않았다. 사실 성년이 된 후에도 생리가 불규칙하여 20대 초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지만, 결혼 후 성생활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리다 아이 갖는 게 너무 힘들어 질 수도 있겠다 싶어 급한 마음에 난임 전문 병원을 방문하였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약물 및 주사로 충분히 배란 유도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난자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식습관 개선 및 운동 등을 권하였고 그에 따르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3달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담당의사는 시험관 시술을 추천하였다.

그 당시 시험관 시술은 생각지도 않아 정확한 지식도 없었고, 주변에서 ‘힘들다 임신’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지라 시험관 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어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 담당 의사와 많은 상의 끝에 시험관 전에 인공수정을 시도해 보기로 하고 처방에 따라 배란 주사 투여를 적극적으로 해 보았으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적정량의 주사제 용량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결국 난소에 무리가 와 복수가 차는 등 인공수정 시술이 취소되기도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다. 거듭된 실패로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이 무렵 고생하는 나를 보며 남편은

어차피 해야 할 고생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냈고 고민 끝에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였다.

시험관 시술 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찾아 정리해보고 주의해야 할 행동 및 음식 등 철저히 준비 후 시술에 들어갔다. 사실 처음 시험관을 진행할 때 우리는 특별한 원인이 없으니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고 쌍둥이가 생기면 어찌나 하는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 이리다 어찌면 엄마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시험관 1차 성공이 어려운 것도 모르고 무작정 ‘시험관만 하면 성공할 거야’라는 자신감으로 임했던 참담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 후 2~3 개월이 지나고 다시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고 2차 시술에 들어갔다. 병원도 바뀌고 간절한 마음으로 배란주사를 배에 놓으며 당시 종교도 없던 나는 세상 모든 신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렸다. **그 기도가 통했는지 드디어 나에게도 천사가 찾아왔다. 그것도 쌍둥이가..... 당황스러웠지만 그토록 원했던 임신이라 남편과 설레는 마음으로 아가들 아기집 그리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임신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무렵 두 아이 중 한 아기의 성장이 멈췄다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 아쉬웠지만 다른 아기가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자고 마음먹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끽하며 둘만의 마지막 여행 및 데이트를 즐겼다.**

어느덧 임신 6개월에 접어든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일어나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피가 휴지에 묻어 나오는 게 아닌가..... 난 너무 놀라 자고있던 남편을 깨워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진찰을 하던 의사는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며 남편을 찾았고 남편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 우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 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입원 수술을 진행하였고 담당교수 진찰 후 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인해 자궁경부가 완전히 벌어져있고 이로 인해 몸에서는 출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응급으로 자궁을 묶는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솔직히 성공확률이 높진 않다.

그래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자궁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하니 다급히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불행 중 다행인지 수술은 잘 끝났고 출산까지 최소 10주는 누워 지내야 한다는 진단 후 바로 회사에 휴직을 내고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며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편은 매일 집과 회사 그리고 병원을 오가며 나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양가 부모님 또한 우리의 안녕을 기원하며 매일 수차례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약 3주가 지날 즈음 새벽에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진통주기가 점점 짧아지며 심각한 상황이 왔음을 직감한 나는 울부짖으며 우리 아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23주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게 아닌가..... 의료진들은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도 자궁이 터져 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무서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의 출근 후 벌어진 일이라 오롯이 이 큰 결정은 내 몫이 되었고 아이를 인큐베이터에라도 넣어보려면 하루가 아닌 최소 1주일을 더 버텨야 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난 울부짖으며 나 좀 도와 달라 살려 달라 의사들에게 매달렸고 응급수술로 자궁을 묶고 있던 실은 순식간에 의료진의 손에 의해 끊어져버리고 바로 출산 준비를 해야 했다. 그 당시 아이를 낳아 하늘로 보내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제 정신으로 자연분만을 할 수 없어 의사에게 수술을 미친 듯이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고 미친 듯이 울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허무하게 하늘로 보내줘야만 했다. 낳은 아이를 보지도 못 쳐보지도 못하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내 몸 밖으로 나왔던 첫째 아들의 장례를 도저히 제정신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 장례 대행업체에 부탁하고 우린 퇴원 후 집으로 향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딸이 안쓰러워 광주에 있는 엄마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달음에 달려 오셨고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로하였다.

집으로 오는 길 부모의 배웅도 없이 외롭게 하늘나라로 가야하는 아들을 이대로 보내 버리는 게 너무 불쌍하고 내 평생 큰 후회를 할 것 같아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우기고 우겨 아이 마지막 길을 우리 부부는 함께하였다. 아이를 화장장에 안치 후 고인 이름에 'OOO아기'라고 쓰인 걸 보고 이름도 없이 나의 부주의로 우리 곁을 떠난 아이가 너무도 가엽고 미안하여 남편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먼저 떠나간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 한 켠이 너무도 시리고 아프다. 그렇게 어이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떠나보낸 후 죄책감에 아이 따라 죽고 싶단 생각만 들었고 임신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었다. 뱃속에서 꼬물거리던 태동을 잇을 수 없었고 배가 나온 임신부들만 봐도 부러움을 감출수가 없어 한없이 쳐다보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가 와 고민도 없이 다음차수 시험관 시술을 도전하였다. 한번 임신 경험이 있어 아마 어렵지 않게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다시 아이가 찾아오면 그뻘 미리 자궁 묶는 수술을 미리 하면 충분히 출산이 가능하다는 담당의의 말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3차 시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 그 후 4, 5, 6차 계속 착상조차 되지 않았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번엔 되겠지' 희망고문 속에 14번의 이식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매번 실패였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말뿐 답답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14번의 이식을 진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검사 및 약 등을 사용해 봤겠는가..... 그러는 사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친조카가 태어났다. 동생의 임신 소식 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닥을 내려치며 얼마나 울고 하늘을 원망했는지 모른다.

주변 지인들의 임신과 출산 소식도 힘들었지만 동생의 임신 소식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한 고통이었다. 아마 그때까지도 아이에게 집착하고 있던 내 감정이 그런 아픔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계속되는 시술로 살은 점점 오르고 내 배는 주사자국으로 멍이 가시지 않았다. 그렇게 임신의 집착이 심해지던 어느 날 정신적 고통을 덜어보기 위해 종교를 가져보기로 하고 천주교 세례를 받으며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 무수한 욕심을 하나씩 내려 놓다보니 절대 못 내려놓을 것 같았던 엄마가 되는 욕심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내가 낳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를 입양해 보고 싶다는 용기도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남편의 격렬한 반대로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현재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항상 비관적이며, 한없이 낮아졌던 자존감도 어느 정도 회복되니 끔찍했던 지난 5~6년의 다양한 사건들이 하나씩 잊혀지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나, 둘만의 삶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으로 한번 만 더

시험관 시술을 해보고 싶었다. 이미 마흔이 넘은 나이라 전보다도 성공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완강한 반대를 눈물로 설득 후 마지막이라는 다짐을 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다시 시작된 수많은 주사를 보며 또 스스로 주사를 배에 놓은 날 보며 남편은 속상해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시험관 준비를 해나갔다. 그 전 진행했던 차수와 다른 것 이라곤 임신의 집착을 버린 것 외엔 모두가 동일한 상황이었다. 평상시와 같이 난자들도 잘 자랐고 난자 채취 28개, 3일 배양 수정란도 9개나 나왔다. 그러나 난자 채취수가 많아 복수가 차는 등 컨디션 난조로 계획된 신선이식이 어렵다는 담당의를 설득하여 수정란 3개 이식 후 이식한 사실도 잊은 채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복수가 계속 차오르는 등 임신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피검결과가 나왔고 1차 피검결과 253, 이틀 후 1,000이 넘는 피검 수치로 임신확정을 받았다. 그러나 또 아기가 떠날 것 같은 불안감에 임신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임신 12주가 되었을 무렵 5년전의 아픔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자궁경부를 묶는 수술을 하고 조심 또 조심하며 뱃속의 아이를 기다렸다. 늦은 나이에 엄마가 된 탓에 임신성 당뇨 및 고혈압 등으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뱃속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출산일을 기다렸다.

병원에서는 자연분만도 가능하다고 권하였지만, 난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에 안전한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했고 그렇게 7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아기 시환이를 만났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옆에서 웅알거리며 도형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다. 가끔 이 아기가 진짜 내 아이가 맞나, 내가 아이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되나 이러다 아이가 잘못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남편은 '이제 그만 됐다. 지금까지 한 고생 보상 받고 있다 생각하며 행복함을 만끽하라' 이른다.

전국의 난임 부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는 찾아 옵니다. 다만 시기가

다를 뿐!! 특히 예비 엄마 분들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시고 내 아이와의 미래를 꿈꾸며, 귀여운 아기 천사를 기다려 보는 건 어때신지요??

## 다시 품은 아이

장려상(한국술가 사장상) - 서OO

하늘이 주신 귀한 아들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먼 곳으로 떠나보냈다. 아들의 나이 고작 여덟 살. 두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품어 낳은 아이였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빼앗아가 버렸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는 당부를 끝으로 한 줌 재가 된 아들을 저 하늘 너머로 배웅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나에게만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 금방이라도 아들이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와 품에 안길 것만 같았다.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고 말하던 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초등학교 앞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만 보아도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껏 울 수도 없었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아들과의 추억에 허우적거리며 혼자서 끼이끼이 목 놓아 울었다.

아들이 떠나고 없는 집엔 적막만이 가득했다. 아들이 있을 때만 해도 화목하고 웃음이 넘쳐났던 집이 하루아침에 창살 없는 감옥이 되고 말았다. 그 감옥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사이, 남편도 조금씩 변해갔다. 나를 보고 있으면 아들 생각이 나서였는지, 아니면 아들을 보내주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사는 나를 차마 보기가 힘들었던 건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섭섭하진 않았다. 남편의 마음을 보듬어 줄 여유가 없어 미안했고, 변변히 챙겨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서는 조금씩 대화가 사라져갔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나를 향해 애처로운 표정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떠난 애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라며 외쳤다. 그의 입에서 그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서 남편은 "우리 애는 이제 그만 보내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야 우리 애도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살 수 있어."라며 내 손을 잡았다. 남편의 절절한 진심이 전해졌기에 나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떠난 아들을 마음속에서 놓아주고, 다시 아이를 낳아 키우자고 남편과 약속했다.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은 것이다. 아이를 낳자고 마음먹으니 신기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고 안정이 찾아왔다.

일단 임신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영 자신이 없었다. 마흔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해 다시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임신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자연임신과 자연분만을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임신이 쉽게 될 줄 알았던 것이다. 그것은 온전히 내 착각이었다. 원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됐다. 운동을 하고 엽산과 한약을 챙겨먹으면서 1년 넘게 아이를 기다렸지만 감무소식이었다. 임신테스트기에서 선명한 드러난 한 줄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조바심만 쌓여갔다. '이러다 정말 임신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난임'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한 나는 지인이 추천해준 난임 전문병원을 방문했다. 처음 난임 병원의 문턱을 넘는 일에는 적잖은 용기가 필요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이를 떠나보낸 후 늦은 나이에 다시 임신을 하겠다고 난임 병원에 가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난임 병원에 처음 방문한 날, 임신이 되지 않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여러 가지 기본 검사들을 받았다. 이후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내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데다가 다낭성 난소증후군까지 있으니 인공수정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뜻밖의 얘기에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공수정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는 여러 맘카페를 돌아다니며 인공수정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는, 전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의사가 알려준 대로 생리가 시작된 후 3일째에 맞춰 병원을 방문했다. 난소와 자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바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생리 중에 초음파를 한다는 것은 엄마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나는 난포를 키우기 위한 약을 처방받았고, 배



란일을 예측해 인공수정 날짜를 정했다. 인공수정 시술 이틀 전엔 다시 병원으로 가서 난포 주사를 맞았다.

인공수정 시술 당일. 아침 일찍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들어갔다. 일각이 여삼추인 심정으로 인공수정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시술 후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밖으로 나왔더니 남편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등을 가만히 다독여주는 남편의 손길에서 파스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날부터 마음을 줄이는 2주간의 기다림이 시작됐다. 안정을 취하는 것 말고는 내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다.

결과를 기다리던 중, 어느 날부터가 자꾸 입맛이 당기고 단 것이 먹고 싶어졌다. 음식 냄새에도 예민해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임신이 된 것 같았다. 임신을 꿈꾸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공수정 1차 성공은 로또 당첨이라고 불린다는데, 내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듯 기뻐다. 남편도 임신인 것 같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2주가 지나서 남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았다. 결과는 빨간색 한 줄뿐, 임신이 아니었다.

2차부터 5차까지 인공수정을 하는 동안 비슷한 사이클이 계속 이어졌다. 생리가 시작되고 3일째 병원에 가면 이번에는 꼭 임신이 될 거라고 희망에 부풀었다. 시술을 받은 후 2주 동안은 상반된 두 가지 결과를 상상하며 매일매일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갔다. 최종적으로 임신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한동안 절망의 늪에 빠져 지냈다. 우리의 도전은 늘 달콤한 희망으로 시작해 씩씩한 좌절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갔다. 임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의 인공수정 실패라는 허무한 결과를 맞이한 나는 곧 모든 의욕을 상실해 버렸다. 인공수정만 시도하면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역시 큰 착각이었던 것이다.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나를 일으켜 세워 앞으로 나아가게 끝까지 이끌어주었던 건 남

편이었다. 남편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인공수정 시술 여섯 번째 만에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하게 됐다. 금이야 옥이야 아홉 달을 정성스럽게 뱃속에 품은 결과,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아기가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다. 먼저 간 아들이 다시 우리 부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오매불망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똑같은 것이다.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아이는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예비 엄마, 예비 아빠들이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힘을 냈으면 좋겠다.

## “난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장려상(한국술가 사장상) - 최OO

누구나 그렇듯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나에게도 임신이 그랬다. 아내와 나는 결혼과 함께 임신을 꿈꾸었지만, 2년 넘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1년이 넘어서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보고 아내는 덜컥 겁부터 났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도 불임이진 않을까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는 눈치였다.

“애 안 생기면 어때?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뭐.”

아내의 마음에 얽어진 짐을 털어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자신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아내가 오열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내가 진심으로 아이를 원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동네에 있는 난임센터에 가게 된 건 순전히 아내 때문이었다. 대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난임센터를 찾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왜 난임센터까지 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우리가 아직 젊고 건강한데, 굳이 조금하게 난임센터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저 시간만 조금 더 지나면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거라고 믿었다.

나는 아내와 같이 난임센터에서 검사를 받았고, 매우 뜻밖의 결과를 듣게 됐다. 아내의 자궁에서 근종이 발견됐던 것이다. 아내는 난임의 이유가 자궁근종 때문이었다면서 결혼 전 산전검사를 받지 않은 걸 크게 후회했다.

실제 의사는 우리에게 “자궁근종은 위치에 따라서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라면서 최대한 빨리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임신을 위해서는 단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내의 몸에 이상이 있어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무척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자궁은 정상적으로 보존하면서 자궁에 붙은 근종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하이푸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시술 날짜를 잡고 난임센터를 빠져 나왔다.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을 찾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난임센터를 방문했다가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만 떠안고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라도 자궁근종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임신 가능성 유무를 떠나 아내의 몸을 생각해서도 근종을 빨리 발견한 것은 긍정적이었다.

하이푸 시술로 자궁근종을 치료한 아내는 1년여 간 몸을 회복한 뒤 본격적으로 인공수정을 준비했다. 근종을 제거했기에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잘 되지는 않았다. 첫 인공수정에서 실패를 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시 인공수정을 계획하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야속하게도 두 번째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연이어 시도한 세 번째 인공수정에서는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됐다. 아내와 나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태명을 ‘축복’이라 짓고, 아이와 함께 할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쁨과 행복도 잠시, 우리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채 듣기도 전에 유산으로 잃고 말았다. 뱃속에서 떠나보낸 아이임에도 유산의 충격은 상당히 오래 갔다. 특히 아내는 자신의 자궁 상태가 좋지 못해 아이를 잃었다며 연신 자책을 했다.

나는 아내를 향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임신 초기에 일어나는 유산은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스스로 도태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자책감 갖지 마.”라고 위로해주었다.

유산의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임신과 출산을 더욱 간절히 원하는 아내를 보면서 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 후 우리는 인공수정을 두 차례 더 시도해서 실패를 했고, 나중에는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해보았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4년 가까이 난임센터에 다니며 쉴 새 없이 치료와 시술을 반복했지만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몸과 마음이 모두 너털너털해지도록 지켜버린 우리는 잠시 휴식기를 갖기로 하고 난임센터에 다니는 일을 멈추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아내는 집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고 지냈다. 마치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아내가 안타까웠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지, 그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주변에서 임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매번 아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더욱 자기 안으로만 고립돼 갔기 때문이다.

돈독했던 부부 사이도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내가 “어차피 나는 애도 못 낳아. 이제 놓아줄 테니까, 나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아봐.”라며 악을 쓰듯 외쳤다. 물론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는 “아기 없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몸부터 생각해.”라며 아내를 보듬어주었다. 난임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리는 아내가 못내 측은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많이 몰려있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문득 ‘그간 아내가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신에 집착한다고만 생각했을 뿐, 아기를 원하는 아내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지 못한 것 같았다.

얼마 후 나는 미련 없이 회사를 관뒀다.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간 모아 두었던 적금을 꺼 아내와 같이 해외로, 국내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녔다. 오랜 시간 임신을 시도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우리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압박을 떨쳐내고 오붓하게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럼 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보낸 나날들이었다.

“난임은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아이가 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자.”아내에게 내 진심을 보였다. 아내가 임신이라는 강박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내 진심이 통했는지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며

활짝 웃어주었다.

여행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 임신이 찾아온 것이다. 언젠가 한 난임 부부가 TV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아이가 찾아왔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모든 부담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서로만을 바라보자,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온 것이었다. 다시 난임센터를 찾아갔을 때 아내는 정말 자신이 임신한 것이 맞느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 의사선생님은 산모의 마음이 지극해서 하늘에서 아이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 말이 나에게서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로 들렸다.

과거 한 번의 유산 경험이 있던 터라 다시 유산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임신 초기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했다. 다행히 뱃속 아이는 아무런 문제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다. 그리고 임신 9주차가 됐을 때, 우리 부부는 아기의 건강한 심장박동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 들어보는 아이의 심장박동 소리에 아내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가 우리를 향해 반갑게 손짓을 보내는 것 같았다. 아내는 난임센터를 빠져 나오며 나에게 지금까지 지켜봐주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아내는 뱃속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았다. 뱃속 아이와 교감을 나누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홉 달을 보낸 결과, 결국 우리 아이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다.

난임은 절대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어쩌면 부부라는 운명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레일 위에서 함께 이겨내야 할 인생의 속제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부부가 힘을 합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앞을 향해 걸어간다면 난임도, 유산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 누구나 난임이 될 수 있다.

입선-장OO

2015년 서른두 살,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이상형에 부합하는 남자를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양가 모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우리에게겐 당연히 자녀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3개월 전부터 엽산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결혼식 후 피임을 하지 않았으며, 서른네 살이었던 저는 배란테스트기를 써가며 배란일을 확인했습니다.

아기를 워낙 좋아하고, 임신에 관심이 많았기에 만 35세 전에 임신과 출산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피임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아닐 거야'라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늦게 결혼했지만 신혼을 즐기려고 피임하는 모든 부부가 하는 생각이 아닐까요? 평소 생리주기가 28일로 일정하고, 한 번도 불규칙적인 생리를 한 적이 없었기에 전 제 몸을 믿고 있었고, 남편 또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난임부부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신혼 때 많이 싸운다는 다른 부부들과는 다르게 싸우지도 않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내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부가 정상적으로 관계를 가졌을 때 1년 안에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난임 카페에 가입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의 설득 끝에 난임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AMH1의 난소기능저하, 남편은 정자수, 운동성 부족, 정상 정자 2퍼센트, 우리 부부는 자연임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난임부부였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이긴 했지만, 좌절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도 일단 인공수정부터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다. 인공수정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침 일찍 진료를 보고 출근을 할 수 있었고, 배에 자가주사를 놓는 것도 처음에는 남편의 도움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혼자서 놓는 게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인공수정 시술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신부처럼 행동하며,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는 피검 수치 0으로 대실패를 하였습니다.

인공수정보다 시험관 시술이 여자 몸에 무리가 가니 남편은 최대한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공수정도 실패했고, 그쯤 제 난소에는 두 번의 과배란으로 물혹이 자라고 있었기에, 시험관을 하려면 한 달을 쉬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에 세 번째 인공수정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험관시술을 하면 바로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두 명이 모두 시험관 1차에 성공을 하여서 시험관 시술을 하면 임신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시험관 시술을 2년 넘게 진행할지도, 신선 6차, 냉동 2차의 차수를 써가며 실패를 반복하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씩씩하게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첫 이식을 하고, 최상급 배아는 아니지만 중상급 배아 3개를 이식하면서 쌍둥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하면서, 휴가도 내고 열심히 쉬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반응이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검사 수치 전화를 받고, 0.1의 수치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연히 시험관 시술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저에게는 1차 시술의 실패가 가장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고, 집에 혼자 있었기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왜 남들 다하는 임신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앞으로 몇 번이나 이 과정을 반복해야 임신을 할 수 있는 건지, 난 불임의 몸인 건지, 수많은 생각과 자책을 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난임이고, 회사를 가야 했으며,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될 때까지 해보자!" 임신을 할 때까지, 내 몸에 아기를 안는 그 순간까지 포

기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을 하며 더 열심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난임 여성들이 겪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힙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며, 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한약을 먹어봐야 하는지 등등입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너무 말랐으니 살을 찌우라고 하시고, 시누이는 고층에 살면 임신이 안 되니 저층으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의 친구들은 마음을 미우라며 혼수를 돕니다. 그러나 정말 친한 친구와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려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일 고마웠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술을 쉬는 동안, 유명하다는 곳에 새벽부터 줄을 서가며 한약을 지어먹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 한재씩을 먹고 두 번째 시험관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시 결과는 실패. 같은 병원이지만 선생님도 바뀌고, 자궁경 수술도 하고, 약도 더 써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반복 착상 실패 검사를 요청했고, NK 수치 13.7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NK 수치가 높아서 배아를 죽이는 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선생님을 졸라 3차 시술에서는 비싼 면역글로불린도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실패.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는 것도, 피검사를 하는 것도 전혀 기대되지 않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을 가고 주사약을 받고 회사에서도 질정을 넣어야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텅텅하게 자가주사를 놓는 저에게 익숙해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 행복해?”라고, 반사적으로 나간 “그럼 행복하지”라는 답변을 하고는 며칠을 꼬집으며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신혼인 결혼생활이 행복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난임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있었지만,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실패하고도 여행을 다니며 다음에는 잘 될 거라며 서로를 다독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기를 포기하고 살면 더 행복할까? 시험관 시술에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내 삶은 행복한 게 맞을까? 길고 긴 고민 끝에 전 지금 나는 100% 행복하지 않구나,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아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차, 5차, 6차 시술을 진행하면서 좋다는 영양제도 먹어보고, 병원도 바꿔보고, 진료기록지를 떼서 호르몬 수치도 분석해

보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남편과 함께 하였습니다.

만 2년을 꼭 채우고, 마지막 보험 차수인 7차를 앞두고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안 해본 건 퇴사밖에 없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면서도 너무 우울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다 쓰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싫었고, 퇴사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말하고도 며칠을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더 중요한 건 아기라고 생각했기에, 10년 근속 표창장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 멀리 청산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해에는 꼭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남편과 둘이 섬에서 오롯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운동, 식단,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써봤습니다. 퇴직금을 고스란히 시험관에 써야 했으므로, 예산도 짰습니다. 꾸준히 해오던 요가를 코로나로 못하게 되어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탄천에 매일 한 시간씩 걷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만보를 걷는다고 하는데, 난소기능저하에게는 지나친 운동도 좋지 않다고 해서 내 몸에 맞도록 6천보 이상(약 한시간)을 걷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걸으면 그 또한 고통 같은 시간일 듯하여 제일 신나는 라디오인 ‘봄봄파워’가 하는 4시~6시 사이에 걸었습니다. 봄의 에너지와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걷는 한 시간이 즐거웠지만, 또한 힘들기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한 시간을 걷는 일이 운동이 꽤 되는 것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걷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있고, 다른 일정이 생기는 날도 있었지만, 열심히 걸었습니다.

164cm의 키에 48kg이었던 저는 살을 찌우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운 계란을 한 판씩 사두고 하루 한, 두 개를 꼭 먹었고 닭 가슴살은 물론, 우유, 두부 등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영양제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엽산 1000 $\mu$ g, 비타민D 1000IU, 종합비타민, 오메가3만 먹었습니다. 빈혈 경계 수치라 종합비타민은 철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먹었습니다. 1월 초에는 자연임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배란 시기가 청산도 여행 갔던 시기여서 그냥 편히

쉬었습니다. 시험관을 하는 2년 동안 생리주기가 많이 짧아져 1월 말에도 생리를 또 했습니다. 그때는 배란테스트기를 써가며 노력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시술을 하지 않는 달에는 무조건 배란테스트기를 쓰면서 노력해왔었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러가자 마음이 조금해졌습니다. 그렇게 1, 2월이 지나고 3월에 병원 예약을 하였습니다.

생리 예정일보다 3일 정도 빨리 생리혈이 비쳤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쉬었는데 왜 이렇게 주기가 짧아지는 건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게 착상혈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월요일에 병원을 가야 했기에 생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 본 임신테스트기에서 전 태어나 처음으로 선명한 두 줄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쁘다기보다 당황스러웠고, 화학적 유산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출혈이 있었기에 남편과 저는 일단 집에 있던 질정을 넣고 누워보자고 결정했고, 다음날 아침 바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 결과 157이 나왔고, 저는 지금 29주차 임신부입니다. 2월에도 습관처럼 했던 배란테스트와 노력이 기적처럼 저에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가져와주었습니다. 마음껏 좋아하지도 못하고 10주까지 난임병원을 다니며 전전긍긍했지만, 지금 제 뱃속에서 아주 열심히 태동하는 건강한 아이가 있습니다.

기적처럼 와준 아이지만,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아기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제가 2년간 노력했던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 퇴사를 결정하며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한 모든 것들이 모여서 임신을 한 게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시겠지만, 전 뭐든 다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꼭 아기는 찾아온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구나 난임이 될 수 있듯이,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끝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 죽음에서 생명으로

입선- 박OO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봐야겠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했다. 결혼한 지 3년을 지나 4년을 향하고 있었고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2020년을 앞두고 이제는 새 생명이 생길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시기였다. 2017년도,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30살, 아직 만으로 29세였던 나는 요즘 시대 흐름에 비해 조금은 일찍(?) 결혼을 했다고 생각한 터라, 급할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다. '난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어도 '시험관'하면 '쌍둥이'?라고 떠올리는 정도였지 태어나고 자라서 학교에 가고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임신과 출산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을 한 뒤 남편과 둘이서 좋은 시간을 더 보내고 그 뒤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도 늦지 않겠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다. 본래 생리불순이 조금 있던 나는 결혼하고 나서 생리불순이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부정출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리불순이 심했었기 때문에 '벌써 또 생리를 하나?' 싶었지만 지속되자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자궁 내 용종을 확인하게 되었다.

용종이나 근종은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때까지만해도 크게 걱정을 안했는데, 용종 제거를 하고 조직검사를 해 보니 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비정형세포가 발견되었다. 바로 '자궁내막증식증'이었던 것이다. 아직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기에 이때도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제 임신을 시도해볼까 싶었는데, 피임을 하며 6개월간 약을 복용하도록 권유받으니 갑자기 막막해지고 계획이 모두 틀어진 것 같아 속상했다. 그렇게 2018년도에 6개월 정도 '프로베라정'을 먹고 피임을 하며 지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임신을 하는 것을 보며 속상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이

때만 해도 '나도 얼른 나아서 자녀를 품을 수 있게 될거야.'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몸 관리를 잘하라는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이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약을 먹은 후에 검사 결과가 좋아져서 6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 임신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 임신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6개월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 해 2019년, 다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클로미펜을 복용하며 날짜를 받아 몇 달 시도를 해 보게 되었다. 하지만 날짜를 받아서 숙제를 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 결국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남편은 정자 검사를 받고, 나는 나팔관 조영술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의 상태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나는 왼쪽 나팔관이 막혀있는 상태였다. 계속해서 나팔관이 막혀 있는 쪽에서만 자라는 야속한 난포... 인공 수정은 시도할 엄두를 못 내고 바로 시험관을 시도해 보게 되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시도한 시험관은 난포가 8개가 자랐지만 모두 공난포에 미성숙난자 1개로, 결국 수정이 안 되어 이식도 못 해보고 시험관을 종료하게 되었다. 주사 용량을 적게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대로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시험관 종료 후에 다음 달에 바로 이어서 할 수 없으니, 3개월 정도 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시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부정출혈이 또 찾아 왔다. 일주일 정도 부정출혈이 보였고 이상 증세를 느낀 나는 바로 다시 병원으로 향해 조직검사를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증식증에 비해 더 심각해진 단계라고, 암으로 보이는 비정형 세포가 있다며 대학병원에 가기를 권유했다. 이제는 정말 임신과 출산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허락될 줄 알았는데, 암이라니... 자궁내막암의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자궁적출'이라는 것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른다. 아직 임신의 '오'자도 본 적이 없는 데, 자궁 적출을 해야 할 수도 있다니... 우리 가정은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인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다.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는 동일했다. 바로 자궁내막암이었다. '암이 맞았구나' 싶으니 무슨 정신으로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바로 자궁적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1기이고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암호르몬제인 '파루탈정'이라는 약물로 치료해 보고 암세포 유무를 확인하여 임신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3개월 단위로 조직검사를 하

며 암세포가 계속 남아 있을 경우에 1년 정도까지 복용해 볼 수 있고 그 뒤로도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자궁적출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임신을 꿈꾸고 바라던 나는 갑자기 나라에서 지정한 중증환자가 되었다. MRI, PET CT 촬영을 한 결과 다행히 다른 곳에 전이되지는 않았고, 1기가 확실하다며 소파술을 받은 뒤 약 처방을 받았다. 자궁내막증식증 때 먹었던 약에 비해 50배 정도 강한 약이라는데 여러 부작용들도 있다고 하고 이 약이 나에게 들지 않는지, 또 사라지더라도 다시 재발하지는 않을지 여러 의심과 걱정이 들었다. 자궁내막증식증도 결국에 이렇게 암으로 재발되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먼저 3개월 정도는 한 약을 먹으며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한약을 먹으며 부정출혈도 없고 생리도 규칙적으로 잘 나와서 뭐가 몸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한방치료에는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다시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3개월간 한약을 먹은 후에 눈에 띄게 좋아진 건 없었지만, 또 더 나빠지지도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결국은 그렇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파루탈 정을 3개월 간 복용하게 되었다. 약을 복용하는 내내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고 운동도 날마다 했으나 체중 증가가 쉽게 되었고, 계속 부정출혈이 있는 상태여서 우울한 마음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끝없이 들려오는 임신과 출산 소식에 전처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것도 참 힘들어서 SNS를 삭제하고 홀로 외딴섬처럼 지냈다.

그렇게 3개월 후,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암세포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결과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난임 병원에 가서 임신 시도를 하라고 했다. 자궁적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시도를 다시 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직 멀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해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결과를 듣자마자 바로 자궁 내막암에서 임신이 되었다는 후기를 찾아보며 유명하다는 난임 병원 몇 곳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되었다.

예전에 시술했던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바로 시험관을 하기로 했는데 병원마

다 선생님마다 처방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다.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험관을 하지는 곳도 있었고, 내막암이었으니 호르몬약을 최소화해서 하지는 곳도 있었다. 나는 아무래도 증식증에서 시험관을 한 뒤 내막암 진단을 받은 터라 시험관이 내막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많기는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자연적으로 천천히 시험관을 하자고 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첫달에 '페마라정'을 먹으며 난포가 1개~2개 정도 자란 것을 확인했고 채취를 했으나 미성숙난자라서 그 달에는 바로 이식을 못하고 성숙시킨 뒤에 수정란을 만들어 냉동을 하게 되었다. 수정란이 1개인데 냉동이 1개가 나오다니, 이것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다.

그 다음 달에도 다시 약을 먹으며 난포가 자란 것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2개 정도를 채취했으나 모두 미성숙난자였고 하루 이를 성숙시킨 뒤 수정란이 된 것은 하나뿐이었다. 그 달에도 이식은 할 수 없었으나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이것도 냉동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5개씩 10개씩 난포를 채취하고 수정란을 확보할 수는 없었으나, 이 두 개의 냉동 수정란이 생겼고 이것을 이식해볼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가정에는 기적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그 다음 달, 이번에는 따로 채취는 하지 않고 냉동 수정란 2개만 이식하기로 했다. 더 모을까 싶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출퇴근을 하며 시험관 일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최대한 약물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여 냉동 이식에 필요한 약물만 복용하고 주사하게 되었다. 냉동 배아가 해동되며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완전 상급은 아니었지만 중상급 배아를 2개 이식했다. 지금까지 신선으로 시험관을 4번 했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이식을 해 보게 된 것이다.

이식 후 열흘이 지났다. 아침부터 피검사를 하러 병원으로 향했고, 피검사 결과는 점심시간 전에 연락을 준다고 했다. 임신 테스트기를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피검사 결과가 정확하니 괜히 마음 졸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 연락을 받았고 수치 60, 임신 수치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물론 이를 뒤에 다시 피검사하여 수치가 잘 올라야 하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자궁내막암 환자였던 내가, 아직 완치 판정도 못 받은 내 자궁 속에 한 생명이 자리잡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이었다.

2021년 9월 현재, 곧 50일을 바라보는 아들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옆에 누워서 곤히 자고 있다. 한 생명이 자리 잡은 후 매일 같이 토하는 폭풍 입덧을 20주 내내 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힘들게 찾아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사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 내막암이었기에 태반조직검사를 해야 해서 대학 병원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지만 태반 검사 결과도 다행히 암세포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요즘은 밤낮 없는 시간을 보내며 피곤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 찾아온 천사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할 따름이다. 작년 초만 해도 임신을 꿈꿀 수 있을까 싶었던 자궁내막암 환자였는데, 새로운 생명을 품고 또 이렇게 눈 앞에 생명이 탄생하게 되다니,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완치 판정까지 앞으로 4년 정도 더 지나야 하고, 결국에는 완전한 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으로서는 둘째도 바라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다시 재발 하지는 않을지 어떨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새 생명이 우리 가정에 오게 된 것처럼 죽음을 보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꿈꾼다.

## 엄마라는 이름의 선물

입선- 박OO

서른넷.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그런 나이에 나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아이가 생기면 바로 낳아 키우자는 소박한 우리 둘의 가족계획을 세웠지만, 우리의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였다. 앞으로 나에게 생길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을 모른 채 말이다.

결혼 4개월 만에 나는 직장 동료의 조언을 듣고 퇴근길에 혼자 집 근처 난임병원을 찾아 검사를 하였다. 나팔관 조영술을 하고 나오자 영상의학과 원장이라는 분이 내게 자연임신이 힘들겠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원장의 말과는 다르게 진료실에서 만난 나의 담당의는 나팔관에 살짝 꼬임이 있을 뿐 괜찮다 하였고 난소 나이가 44살로 시험관을 진행해야 한다며 연륜이 있는 원장님으로 급히 바뀌주셨다. 열떨떨함과 불안감을 지닌 채 그렇게 따스한 봄날 나의 첫 시험관이 시작되었다.

내 나이 서른다섯. 시험관 첫 주사, 첫 채취, 첫 이식-7개의 배아가 만들어졌고 3일 배양 최상급 2개를 이식, 1개의 5일 배아가 냉동되었다. 첫 시험관에 최상급이라니!!!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지만 내리 3번의 실패를 맛보았다. 3번째에는 찾아올 줄 알았던 아이. 얼마나 더 많은 실패를 해야 할까. 반복 된 실패에 난 끝없는 우울감에 빠져 지냈다. 폐인의 삶을 지내다 10년간 다녔던 직장을 떠나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 한 시간 거리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던 차에 가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현실에 나는 이직 4개월 만에 과감히 질병 휴직을 제출하고 좀 더 나에게 집중해보고자 했다. 휴직 시 직장 내에서 나에게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였다. 들리는 모든 말들이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이들이 내 인생을 대신해주지 않기에 과감히 나와 아이만 생각하고자했다. 복직 후 더 열심히, 더 잘해내리라는 오기가 나를 버티게 했다.

난임 휴직 후 편도 3시간 걸리는 대구로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상담 의자에 앉으니 곧 폐경이란다. 그러면서 본인 책상 서랍 속에 DHEA가 든 약 케이스를 선물 꺼내며 먹으라고 하셨다. 상처받은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듯 했다. 버스를 타고 여행 다니듯 다녔던 대구에서는 조기 배란과 2일 배양한 배아를 3차레 이식하고 끝이 났다.

하~...

내 인생에 아이란 있는 것일까..

시술실 천장에 있는 문구처럼, 작은 걸음으로 오기에 늦는 것일까? 하며 내 인생의 절망이란 절망은 다 겪었던 암흑기였다. 이때는 시아버님의 암이 재발 되어 신랑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에 나 또한 신랑에게 온전히 의지하기가 어려워 너무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10년 넘게 직장생활 하다 휴직이라는 시간이 생기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던 나는 아침에 출근하는 신랑을 따라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동네에 있는 작은 산에 올랐다. 그리고 일부러 다른 동네에 있는 코바늘 공방을 등록하여 주 3회를 다녔다. 바깥 외출과 코바늘을 통해 시험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자 하였고 삶을 활기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며 계속 병원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와 난가연에서 강의를 듣고, 하루 만보 나눠 걷기, 물 많이 마시기(연근, 대추, 생강), 일찍 자기, 영양제 챙겨 먹기, 한의원과 한약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6번의 실패로 두툼해진 나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청량한 가을날 새로운 병원으로 향하였다. 나의 기록들과 초음파를 보시고 "충분히 자연임신 할 수 있어요~!!"라는 부드러운 원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고 말았다. 지친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고 다독여 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나의 7번째 시험관이 시작되었다.

새벽공기를 맞으며 SRT를 타고 "든든한 내 편"을 만나러 가는듯한 기분으로 왕복 9시간의 병원을 다녔다. 그 전 병원과는 다르게 많이 심플해진 처방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든든한 내 편인 원장님을 만났다는 생각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9시간의 거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난자채취 자체는 5~6개였다. 그리고 수정 되는 건 2,3개. 침울해 하는 나에게 원장님은 푹푹한 아이 하나만 있음 된다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잡아 주셨다.

시험관 7차, 또 실패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투약해야 하는 주사도 오전에 맞지 않았다. 피검 결과가 나오고, 설마, 임신 이란다!!!

내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신랑과 어병병한 표정으로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나날들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꿈꾸었다. 암투병 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주신 선물 같은 내 아기. 하지만 우리 토리는 17주 중기유산으로 저 멀리 떠나버렸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17층 베란다에 서 있으며 하염없이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하였다. 도대체 나의 멘탈이 얼마나 더 강해야 할까? 얼마나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을까, 휴직을 1년 더 연장하고 그 삶을 또 반복해야 하는 현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우리 부부를 더 없이 힘들게 만들었다.

‘아주 먼 길을 오래오래 달려오는 나의 아가야’  
 ‘마지막 한 고개를 넘어서’  
 ‘따뜻한 엄마 품으로 빨리 달려오렴’.

이 문구를 다시금 되새기며 신랑과 나는 한번 착상이 되었고, 유지가 되었던 만큼, 내가 임신이 안 되는 몸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었으니 다시한번 더 해보라며 마음먹고, 든든한 내 편이 있는 원장님께 달려갔다. 유산 후 내 몸의 수치는 더 바닥이 났다. 내일 당장 폐경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치. 그렇게 나의 시험관 8차는 실패로 돌아갔다.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다. 마음속으로 10번 안에는 되겠지, 나는 임신이 되었던 사람이니까 될 거야!! 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

내 나이 서른일곱, 무더운 여름날에 나의 9번째 시험관이 시작되었다.

채취를 앞두고 마지막 진료를 봤던 7월 23일. 나의 토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예정일이었다. 쏟아지는 눈물을 숨기지 못하고 원장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어버렸다. 시원한 여름비가 내리는 날. 3일 배양 3개의 배아를 이식하고 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평상시처럼, 별 다를 게 없는 나의 생활.. 괜한 느낌에 이번에도 안됐을 것만 같은 느낌. 오후 늦게 집 근처 병원에서 피검을 하고 오전 투약도 하지 않은 채 신랑과 함께 해변 드라이브에 나섰다.

울리는 전화소리에 신랑 목소리가 떨어온다. 피검 59.1

우리 토리가 다시 나에게 찾아와준 것이다.

건강하게 만나자 했던 우리 아들, 막연하게 따스한 봄날에 만나자 했던 나의 아가.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어느덧 160일이 지나 내 옆에서 췌근췌근 잠을 자고 있다.

따스한 봄날에 시작했던 시험관.

따스한 봄날에 태어나준 우리 아가.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조금씩, 진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나의 난임 동지들, 친구들이 너무나 생각한다. 작은 아이의 발걸음이 모여 엄마, 아빠에게 힘겹게 오고 있는 중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먼 길을 작은 걸음으로 오느라 고생하고 있을 우리 아가에게 힘내라고 응원해주라고 말하고 싶다. 따스한 봄날의 온기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란다.

##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입선-이00

25살에 결혼하여 난임은 저와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했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임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 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힘든 시간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처음부터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임신에서 절박 유산, 그 다음에는 자궁 외 임신으로 난관 결찰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연임신이 어려워 난임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와 사뭇 다른 무거운 분위기의 난임병원 첫 방문 날을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듯 과배란 약을 사용하고, 인공수정을 하였고 종전에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낳았고 지금 그 아이들은 세 돌이 넘었습니다. 인공수정을 실패하고 저는 앞선 한 번의 유산과 자궁 외 임신으로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라 한 번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여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감이 깊었습니다.

**그 무렵 난임가족연합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도 듣고 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참여했습니다. 난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1박2일 캠프에 참가하였는데 저는 그 중 나이도 어리고, 저 차수에 속해서 이런 나도 여기에 참가해도 되는 곳인가 머쓱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신 연합회의 관계자분들과 참여하신 부부님 모두 따스하게 맞아주셨고 서로 경험담과 정보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정말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마음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난임에 있어서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든 어려운 점은 있었고 남편이 평소에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시술 과정에서 여자가 겪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 그 이후 시술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하였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혼

까지 생각했던 저는 캠프에서 나올 땐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결코 평탄한 과정이 아니기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은 시간을 남편과 보내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시술에 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기, 족욕하기입니다. 아랫배가 차갑고 생리통이 있었는데,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난임 카페 및 연합회에 참석하여 정보를 얻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난임은 주변에 흔하지만 먼저 말하거나 알리기 어렵기에 시술을 준비하며 정말 많이 외로웠는데, 같은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지금이야 아기도 낳고 수기도 작성하고 있지만 과거의 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기다란 터널 속에서 많은 좌절도 했고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도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자” 이 마음으로 견뎌냈어요. 사실 즐기지는 못했고, 그냥 견뎌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그냥 복잡하지 않게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분 좋은 하루하루가 쌓여 이쁘고 건강한 아기천사라 오리라 믿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고되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든든한 내 편이 있으니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 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된된꼭성공수기공모전

입선-강00

혹시..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하는 인디언의 기도를 아시나요?? 그 이유는 비가 올.때.까.지. 하늘에 계속 기도를 해서라고 해요. 그러니 결국은 비가 올수밖에 없는 거죠^^;; 꼭 이루어진다는 인디언의 기도처럼. 저도 꼭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 노력은 엄마라는 이름이 될 때까지였거든요. 저도 언젠간 꼭 아기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신랑은 나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 일찍 결혼했어요.

어려서 모은 돈도 없고,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해서 그런지.. 내 집 장만은 하고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다 지난 후..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지도 몰라요. 한 6년 정도 돌이 열심히 모아서 첫 아파트 장만을 하고, 이제 우리의 완성은 아기가!!라고 생각 했어요~ 완벽한 가정이 될 것 같았죠^^

우린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당연히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어요. 신랑이랑 돌이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폐백 때 밤이랑 대추를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한번에 24개나 잡았거든요. 그래서 웬지 금방 아기가 생길 것만 같았어요!! 어랏! ..그런데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ㅠㅠ

좀 불안하기도 하고..보통 남자 먼저 검사를 받는 거라고 어디서 주워들어서..주위에 임신이 잘 안 되는 신랑친구와 신랑이 같이 정자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혈..신랑 친구는 무정자증이고, 신랑은 활동성이 떨어 진다네요.. 아무리 요즘 난임이 많다고 해도, 내 주위에도 있던거였어?? 라고 맘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신랑 친구는 바로 시험관을 시작해야 하고, 저희 신랑은 인공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하더라고요.

저도 인공수정 준비를 해야 해서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더 큰문제가 생

겼어요. 제가 난소기능저하래요. 제 나이는 만으로 20대인데, 난소나이는 44세라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제일 속상했던 일은 난자채취 후 마취가 풀려 신랑에게 연락을 했는데, 신랑은 정자채취 하라고 아직 안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이게 공난포인가?? 이제는 난자채취도 안 되나보구나.. 제가 난자가 없어 슬픈 것 보다, 그때는 다른 남편들은 다 정자채취 하러 시술실 문을 들어가는데 올 신랑 혼자 호명이 안 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기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자기 이름 불리길 기다렸다는게 너무 불쌍하고 속상해서 눈물 펄펄 나더라고요. 그 뒤로도 배양실 때, 공난포, 착상 안됨 등으로 시험관 횟수만 점점 늘어갔어요.;

계속된 실패인데 신랑친구 부부가 저희에게 병원을 옮겨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 친구 지인도 기형정자가 많아서 10번 넘게 시험관을 했는데 계속 실패해서 서울에 모 병원으로 옮겼는데 한 번에 성공했다!! 지금은 지방이라서 아무래도 의료기술이 뒤쳐질 수 있으니 제발 꼭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속는 셈 치고 저희도 병원을 전원 했어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메이저 병원이라 돈도 더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아기만 우리에게 와 주면 못할 것 없다는 생각으로..

아무튼 병원의 적극적인 처방으로 배아글로불린도 맞고, 크녹산 주사도 계속 맞고, 뭔가 전에 병원보다는 귀찮은 일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처방이 많으니 이번에 성공하면 좋겠다고 생각 했어요^^;

아침!! 전에 시험관 진행 했을 때와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전에는 소고기예, 포도즙예, 두유예, 전복예, 건강한 음식 및 걷기 등 진짜 착상에 좋고 임신에 좋은 것은 빼놓지 않고 실행했는데.. 15차고 차수 시험관이 되어보니 이제 그럴 에너지도 없더라고요;;ㅋㅋ

이번에는 그냥 귀찮(??)기도 하고 병원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냥 좀 쉬고 싶다는 생각과...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좀 덜 열심히 해보자^^;; 했어요.

왜! 마지막이었을 시험관에서는 그렇게 자포자기 했는지 모르겠네요..ㅋㅋ

그런데... 그 안 좋은 행동만 했던 15차에서..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물론 이 얘기를 하는 건..몸에 안좋은 음식 및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초조해 하지마시라고 조심히 말씀드려요^^;; 불안에 떨면서 포도즙, 소고기, 전복 먹었던 날보다, 저는 맘 편히 제가 좋아하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먹었을때가 결과가 좋았네요!!

오래 다녀서 배려 많이 해준 회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도 좀 보이고, 좀 더 시험관에 집중하려고 회사도 그만뒀서, 비용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몸보다는 정신적인 힘듦으로 인해서.. 어차피 계속 해도 안되는거 중간에 몇 번 포기할 생각도 들긴 했지만..

전에 난가연에서 보여준 영상에 대구OO원장님께서 여자는 생리만 안 끊기면 임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영상보고 다시 계속 될 때까지 도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한 명 착상도 그렇게나 힘들었던 임신이었는데 아기가 둘이나 딱 붙어있어 짱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쌍둥이를 낳았어요!!

저 마지막 A.M.H = 0.19 였어요.

병원에서는 난소나이 48세라고 했구요.

시험관 카페에 보면 난소기능저하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결국.....'하면된다!!!' 예요^^ 전 총 5년 걸렸네요..

빨리 전원했음 더 일찍 좋은 결과를 접했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언제 어떻게 좋은 배아가 나올지 모르니 포기 하지 마세요!! 무조건 매달 계속 시도하세요. 너 무너무 힘들고 기다렸던 임신.

빛도 안 보이는 끝없는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기분.

병원 다니면서 임신하면 주는 다이어리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내꺼♡ 다이어리를 받았을때의 그 감격..

시간이 지나고 아기의 첫 태동이 느껴졌을때..

정말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일꺼예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제 기운 팡팡 받아서~~

진짜 건강한 아기 출산까지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 난소기능저하의 일란성말둥이의 기적!

입선- 이00

저는 amh0.08 극심한 난소기능저하로 6개월 동안도 공난포만 채취되는 채취가 넘 힘든 케이스예요. 결혼 후 처음 6개월은 자연임신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다음은 병원 가서 낱자 받고 했으나 안 되어서 본격적으로 난임병원을 찾아갔어요.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 제 amh 수치보고는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서 여동생 없음 가망 없다고 얼마나 절망적인 말만 늘어놓던지... 그때 너무 충격적이라 혼자 차안에서 영영 울었습니다. 처음 난임병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의학기술의 발달로 금방 임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아예 희망이 없다는 얘기에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당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죠. 처음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넘 좋았어요. 그리고 난포가 그래도 하나씩은 보인다고 잘하면 한방에 되겠다며, 부푼꿈에 안고 채취를 했는데, 첫 채취가 난포가 공난포였어요. 미리 공난포에 대한걸 알았다면 그리 충격 받지는 않았을텐데 채취 후 수면마취 깬 후 먼저 보인 신랑보고 물어봤는데 그냥 미소만 띄우고 말을 안 해주고 담당간호사 만나고 공난포인걸 알고, 병원 앞 가로수에서 주저앉아 창피한줄도 모르고 영영 울었네요.

그래도 이때는 한 달에 한번 난포가 보여 계속 채취를 했는데 6개월 내리 공난포였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선생님도 저를 보며, 공여할 사람 있다고, 제 난포로 힘들 것 같다고 포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송파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난소기능저하도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첫 진료 역시 좋았어요. 마음 따뜻하시고, 여기서도 공난포가 있었지만 채취 한 개가 드디어 성공했었어요!!!

채취성공의 기쁨을 맘껏 누리고, 이식 날을 꿈꾸는 그 순간 너무 좋더라고요.

이식 당일날 아침 병원 앞에서 이식시간 기다리며 아침을 먹는데 매뉴가 콩나물국밥이었는데 콩나물국밥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병원에 전화가 와서 무슨 전화인가했는데 이식당일 배아분열이상해서 취소해야할것 같다는 전화였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이식이었는데... 채취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난소기능저하는 한단

계한단계 다 넘어야할 산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많은 공난포와 배아수정실패, 분열실패를 겪으면서 단하나의 난포가 이식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착상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 또 다른 선생님을 3개월이나 기다려서 가봤는데 거기서도 제 수치와 기존내용을 듣고는 여기서도 별반 다를게 없으니 그 점 감안하고 진행할거면 하라는 얘기에 그냥 나왔네요.

정부지원을 이렇게 제대로 된 이식에 쓴 건 한 두 번 뿐 다 배아분열실패로 중간에 끝나거나 공난포로 자비로 돌렸는데, 공난포가 많이 나오는 저는 자비금액도 엄청 많이 나오니 금전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이때 알게 된 것이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아가야보듬이' 사업이었어요. 운 좋게도 저희 사연이 당첨되었지만, 해당병원이 저에게 공여를 말했던 병원이더라고요. 가길 망설였으나... '그래! 어디든지 다 안 된다는데 그냥 묵묵히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에 다녀왔어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했는데 역시 처음은 공난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이상하게 생리6일째인데 난포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별일이 다 있다 생각해서 지나쳐버릴까 했는데, 제 난포가 언제 정상인게 있었어야죠. 그래서 채취를 결정했는데, 이 아이가 자연수정에 냉동까지 된 겁니다.

이 냉동된 배아로 희망을 가지고 그래 계속 신신으로 했으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냉동 3개월만 모아보자라고 결심하고 묵묵히 병원과 회사를 오갔습니다.

아가야보듬이 쓰고 싶었는데 주사한번 안 쓰고 채취된 난포에 아가야보듬이 쓰기 아까워 다음에 쓰기로 했는데, 제가 아가야보듬이 쓰기도 전에 19년도 추가로 난임정부지원이 추가되면서 그것 먼저 쓰고 아가야보듬이를 쓰게 되더라고요.(임신되기까지도 아가야보듬이는 못 써서 나중에 다른분께 양보하게 되었어요^^) 그 후도 2년이 걸려 배아 3개를 모았어요. 2년 동안 병원을 안 간 날은 없었어요. 생리가 없는 날이 쉬는 날이었고, 생리하는 날은 무조건 병원을 갔어요. 그 2년 안에 수많은 공난포와, 수정실패, 분열실패 등은 많이 있었지만, 공난포 나온 날은 '그래도 정부지원차감은 안 되네'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정실패와 분열실패를 겪으면 그래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고 저 혼자 마라톤경주를 이어갔어요. 그 덕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귀하고 귀한 냉동배아3개를 얻고 냉동이식만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진짜 마지막 기회이기에 뭐든지 다 하고 싶어 자궁경도 하고 다음 생리 기다렸는데, 생리 시 호르몬 수치가 이상해서, 패스하다 보니, 자궁경&자극술효력기간이 지나고, 이식하기 괜찮은 주에 맨 정신으로 자극술을 하고, 면역글로빈도 맞고, 언제 있을 수도 모를 이식을, 또는 어쩌면 마지막 이식일 수 있으니, 회사에도 과감이 말해 병가를 쓰고 편안히 있기로 했어요.

이식 후 매일매일 이식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다 하고, 족욕도 매일하고, 기도도 매일매일 하고 정말로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온 마음 온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첫 피검일 아침에 임신테스트기를 했어요. 하기 싫었지만, 피검을 기다리고 있지, 기다지 않고 그냥 집에 올지 결정해야 해서 했는데, 처음으로 열은, 아주 열은 두 줄을 발견합니다. 그 많은 임신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처음봐서 눈을 다시한번 비비고 봐도 아주 희미하게 두 줄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기간도 수월하진 않았어요. 임신초기 계속 갈색피가 비치다가 갑자기 빨간피가 주르륵 나와 응급으로 병원갔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엇, 쌍둥이네요. 일란성쌍둥이요' 라고! 처음에 단태아인줄 알았는데 쌍둥이라는 말에 어안이 병병해졌어요.

하늘의 신이 있다면 분명 저의 고생을 보답이라도 해주시는 걸까? 이렇게 한꺼번에 둘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일란성쌍둥이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난임으로 힘들었던 저는 임신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임신유지 또한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여러 기형아검사, 니프티검사, 임당, 임중 등 보통 임신의 다양한 검사들도 있지만, 일란성쌍둥이의 경우는 쌍태아수혈증 등 힘든 경우가 있고, 아이들 몸무게 차이도 나지 않아야하고 등등 많은 난관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만 걱정이 한아름이었지 모든 난관을 씩씩하게 이겨서, 21년 9월 23일에 2.59kg 2.55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를 포기한 많은 의사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작고 소중한 일란성쌍둥이들과 함께 있거든요.

정말로 포기하지 않음 '된다된다꼭된다'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난임의 종류는 너무나 많지만 모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 조금만 힘들고 아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언젠가 꼭 만나

입선- 박OO

“악”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 것 같다. 나의 뒤편쪽 성공수기의 첫 이야기는, 초등학교 5학년 봄, 팬티에 비치는 아주 작은 핏자국이 나의 초경인 듯하다. 처음 생리대라는 것을 착용해보고, 나의 엄마에게서 “이제 엄마가 될 준비가 된 거야”라는 말도 들었다. 그때 까지만 해도 내가 엄마가 되는 과정은 아주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5달에 한 번 그냥 생리는 나오고 싶을 때 지독한 생리통과 함께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생쯤이 되었을까? 그때 처음 생리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특별한 생리주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생리가 매달 나와도 성가시고 귀찮을 거라 생각했던 나는 그 주기라는 것에 별 걱정이 없었다. 결혼을 하고 첫 임신이 되기 전까지는,

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악”소리와 함께 시작된 나의 첫 임신. 결혼 3년차 겨울이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 한 걸음 떼던 순간 “악”하는 소리와 함께 아랫배가 당기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아픔을 느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나는 그 순간 임신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했을까? 한 번도 임신을 해 본 적도 없고, 임신이 되었을 때 초기 현상에 대해서 들어본 바도 없던 내가 그냥 이거는 임신일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신랑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기야 나 임신한 거 같아” 하고 말했다. 신랑은 더 장난스럽게 웃으며 “장난치지마라~ 배 당긴다고 다 임신이냐”하고 말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 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피임을 하지 않아도 2년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 특별히 피임을 하거나 그렇다고 임신을 하고 싶어 더 노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저녁 신랑이 퇴근길에 테스트기를 사다주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특별한 기대 없이 테스트를 해보았다. 세상에, 소변이 지나가면서 동시에 아주 진하고 선명한 두 줄을 보았다.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드라마 속에서 이

런 두 줄을 자주 보았다. 조금 당혹스러웠던 건 드라마 속 임신 반응은 ‘욱’하며 구역질을 하거나 뱀새를 잘 말지 못하거나 아주 뚜렷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나는 배 당김 한 번이 끝이다. 생리주기가 없었기에 임신이 잘 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 첫째 아기 ‘설’이가 왔다.

설 연휴 일주일 앞두고 찾아온 아기라서 우리는 ‘설’이라고 태명을 지었고, 테스트기 두 줄을 보는 순간 아기에 대한 욕심? 애착이 엄청 강해졌다. 그렇게 손잡고 테스트기 핸드백 안에 꼭 챙겨 넣고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산부인과에 들어서니 순간 너무 설레었다. 곳곳에 앉아 있는 배 나온 임신부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뭔가 허리춤에 손이 올라가야 할 것 같았다. 대기하는 동안 테스트기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설에 친정, 시댁에 가서 이 소식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할지 고민도 했다. 그렇게 진료실에 들어가 처음으로 아기집이라는 길쭉한 동그라미 모양을 만났고 산모 수첩도 받았다. 와, 산모수첩. 내가 산모수첩을 받다니. 뭔가 굉장한 감투를 쓴 것처럼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설 연휴 친정과 시댁에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설’이를 자랑했다. 어른들은 아주 동그란 표시가 아기가 맞느냐 물으시며 좋아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이는 내가 안 아볼 수 있는 첫 아기가 될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다음 방문일이 되었다. 이제 난황이라는 것이 보이겠지? 아닌가?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차레인가? 그렇게 신랑 손을 잡고 누워 두 번째 초음파를 보는데 “하....” 의사 선생님의 아주 낮은 탄식소리. 그냥 듣기에도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왜요?”하고 묻는 나의 불안한 목소리 뒤로 “아기 심장이 잘 안 뛰네. 이거를 태아 서맥이라고 하는데 아기 심장은 아주 빠른 속도로 쿵쿵 뛰어야 되는데 너무 안 뛰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후가 안 좋아요. 다음번 방문 때 지켜 봐야겠지만 아기 보내줘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의외에 의사 선생님 말씀에 눈물이 하염 없이 흘렸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고 산모의 잘못도 아니고 아기가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조금 약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라고 한다. 그 이튿날 거짓말처럼 하혈과 함께 첫 유산을 했다.

‘유산’이라는 것을 내가 겪을 일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나는 임신 축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급휴가를 내고 소파 수술을 받았다. 얼마나 울었는

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온 가족이 마음 아파 함께 울었고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함께 울어준 사람들도 있었다. 아주 잠깐 만난 인연이지만 '아기'라는 생명체가 주는 그 영향력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의 임신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것 같다. 한번 생겼다가 아기가 가고 나니 어떻게든 임신을 하고 싶었다.

아마 아기를 잃은 공허함이 엄청 컸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내 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 같다. 산부인과 검진 후 결과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단다. 요즘은 많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배란이 정상적이지 않아 자연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과 배란 약을 먹으며 배란일에 맞추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임신 확률이 높은 기간에 부부 관계를 하고 기다리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기를 6달이 지났지만 전혀 내 몸은 반응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같은 직장 동료 선생님이 난임 전문 병원에 다니면서 시험관 기술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돌이켜보니 내 주변에도 결혼은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들이 참 많았다. 요즘은 정말 많은 것 같다.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여성들의 호르몬이 임신이 잘 되지 않게 변화한다는 말도 들은 것 같다. 어쨌든 나도 신랑과 상의 끝에 난임 전문 병원을 찾게 되었다.

이전에 다니던 병원과 다르게 훨씬 규모도 크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도 사뭇 달랐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난임 병원에는 배가 부른 산모는 거의 없었고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 첫 산부인과에 들어설 때와 지금 내 마음도 아주 달랐다. 더 불안하고 걱정되고 낯설었다. 처음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도시락 가방처럼 생긴 보라색 가방이 참 궁금했다. "저건 뭐까?"하고 아주 궁금해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손에도 그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난임 병원에서 이 가방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가방을 참 열심히도 가지고 다녔다. 의사 선생님 상담 후 첫 시도는 인공수정이었다. 참 갈수록 태산이었다. 임신, 유산, 과 배란 유도, 인공수정. 그 다음은 또 누가 날 찾아올까하는 기대까지 생길 정도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공수정 2번 모두 실패. 이상하게 인공수정을 2번 하는 동안에는 내

느낌에도 임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냥 내 직감이었던 것 같다. 내 주변에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한 친구들도 꽤 있었지만 이상하게 내 직감에 나는 시험관까지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수정 2번 이후에 나는 의사 선생님께 시험관을 하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했다. 주사실에 가서 내 배에 직접 주사 바늘을 찌르는 방법을 설명 들었다. 어릴 적부터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던 나는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명을 숙지하고 또 숙지했다. 처음 주사 바늘을 찌르는 날 아침에는 그냥 무섭고 이 상황이 처량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에 눈물을 툭툭 흘리며 주사를 놓았다.

신랑에게 맡기는 것이 더 무서웠던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성공적으로 주사를 놓았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퍼런 멍과 함께 통증도 찾아왔다. 경과를 보면서 주사양도 정해야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받아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출근 전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그때마다 보라색 주사 가방은 늘 함께였다. 시험관 기술을 받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웃고 넘어갈만한 추억이 된 것 같다. 바쁜 아침 시간이었지만 운전이 미숙한 나는 택시를 타고 20분 거리의 병원에 다녀와서 출근을 했고, 서울에서 듣는 일주일의 교육기간 동안 사용할 주사를 아이스 팩 든듯히 넣어 교육 숙소까지 가지고 가서 숙소에서 주사를 찌르기도 했다. 배에 멍이 너무 많이 들어 내 스스로 주사를 놓을 엄두가 나지 않을 때는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대신 놓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내 통통한 뱃살을 노출하면서까지 나는 임신에 대한 의지가 컸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관 아기 기술이 성공했다. 우와. 정말 너무 좋았다. 또 나는 새롭게 산모 수첩을 받고 첫째 아기 때와 비슷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이번 아기 태명은 '건강이'였다. 심장이 잘 뛰라고 '쿵쿵이'라고 지을까 생각도 했지만 건강이라고 평범하게 지었다. 그렇게 또 9주차 아기를 보러 산부인과에 들릴 때 쯤 직장 화장실에서 하혈이 시작되었다. 오전부터 아랫배가 살살 아파왔는데, 하혈까지 하는 것을 보고 또 아기를 보내야 하는 구나했다. 나는 직장에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소파 수술을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직장에서도 많은 위로와 눈물을 흘려주셨다. 이제는 서러움 보다는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검색을 했다. 뭐 비슷한 사례들과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특별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그렇게 건강이를 보냈다. 그제 서야 시어머니께서 태몽을 꿴

네 손에 감이 떨어져 터지는 꿈을 꾸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내 몸이 회복되고 마음도 안정을 찾을 때쯤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을 했다. 신랑이 우리가 설레발을 떨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안정기 들면 주변에 알리고 태명도 12주 지나서 짓자고 한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자고 한다. 나도 그러자고 했다. 12주가 지나 이 아기는 태명을 갖게 되었을까? 맞다. 땡글이라는 태명을 가지게 되었고 아주 건강하게 15주, 20주, 25주 차근차근 잘 자라 주었다. 감사하게도 나에게 1차, 2차 기형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입체 초음파라는 신기술도 경험하게 해주었다. 물론 아주 맛있는 임당 검사 약을 먹어야만 하는 기회도 주었지만. 그냥 이 모든 것이 감사했다. 그냥 더 바랄게 없었다. 심장이 잘 뛰어주고, 주수에 맞추어 쑥쑥 자라주는 우리 땡글이가 기특하고 대견했다. 임신기간 동안 나는 편하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38주가 넘어 제왕절개로 지금 우리 아들을 출산했다.

나는 보육교사이다. 사실 현장에서 많은 수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상황이 시험관 시술을 견디는 과정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 직업이기에 이식을 하고 온 날에는 엄청 걱정되기는 했었고, 임신 유지 기간에도 불안한 적이 많았다. 병원에 가는 날과 오전 당직 날이 겹치면 당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 서러울 때가 많았다. 그래도 나는 난임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변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내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물론 내 상황이 해결 된 이후에는 나도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다. 내가 시험관 시술을 시도할 때도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가 꽤나 도움 받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욱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 현재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다. “된다! 된다! 꼭 된다!”

## 포기하지 않으면 꼭 됩니다.

입선- 신00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이토록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나 싶다. 으레 그렇듯 나도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당연한 수순처럼 아이 둘 정도는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줄 알았다. 그냥 그렇게 평범한 삶이 그렇게 힘든 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혼 전 자궁내막중 수술 이력이 있던 나는 그 당시 되려 수술을 안 하면 불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술을 했었기에 나는 수술했으니 당연히 임신에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다. 그래도 행여나 불안한 마음에 결혼 후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받았고 이상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었다. 그리하여 마음 편히 신혼을 즐기고자 1년 반 동안은 피임을 하였고, 임신 계획을 한 뒤에는 세 달간 일반 산부인과에서 배란 초음파 추적을 하며 숙제를 받아 시도했지만 소식이 없었다. 때마침 난임병원에서 임신에 성공한 지인들의 소식이 들려왔고 난임병원에 가볼거라면 일찍 가보라는 그들의 조언을 듣고 난임병원에 첫 발을 디게 되었다.

amh0.41 난소나이 45세. 나팔관 꼬임 및 유착. 정상정자 3%. 그 때 우리 부부의 나이 만 31세였다. 조기폐경이 다가왔으며 이 정도 수치는 인공수정도 의미 없으니 당장 시험관을 시작하라는 의사의 말. 바로 다음 달부터 시험관을 시작했고 주사실에서 배주사 놓는 법을 배우는데 간호사가 내 배에 주사를 놔주는 모습만 보고도 미주신경실신처럼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시험관은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간호사의 조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시험관 첫 시도부터 난관이었다. 과배란 주사를 맞고도 난포가 자라다 멈춰서 중단. 그나마 보험 차수는 깎이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웃픈 현실이었다. 그 다음 차수를 이어가면서 공난포도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난자가 서너 개씩은 나와주었고 등급도 대부분 상급, 최상급에 내막도 항상 좋았지만 6번의 시험관은 모두 실패로 끝나버렸다. 이 실패의 과정들을 겪으며 순간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시간이 금이라는 난소

기능저하이고 이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만 같아 난임휴직을 했다.

한 병원에서 여러 번 실패하게 되니 전원을 하였고 대중교통 왕복 7시간 거리의 병원에 다니며 두 번째 시도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안정된 피검 수치로 시작하여 아기집, 난황, 심장 소리와 기형아검사까지 모두 문제없이 통과하였고 하루하루 기쁨의 나날들이었다. 양가 모두가 기다려왔던, 시험관 8번째 시도 만에 찾아온 더없이 귀한 아기였다. 초음파로 아가를 만나는 일이 경이로웠고 점차 배가 불러왔고 미세한 태동도 느낄 수 있었고, 남편은 내 배를 쓰다듬으며 나와 아가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길에 나서곤 했다.

어느 주말 배가 좀 멍기고 허리를 곧게 펴고 서면 배가 살짝 아프기도 했지만 주수가 찰수록 그럴 수 있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월요일 아침 병원에 갔다. 그냥 잘 있는지 확인이나 하고 오면 마음이 편하지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갔다. 그런데 초음파를 보면서 심상치 않다는 걸 나도 바로 느낄 수 있었고 의사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리저리 자세히 초음파를 보던 의사는 조심스레 아무래도 심장이 멈춘 것 같다고 말하였고, 항상 그랬듯 초음파 사진을 산모수첩에 붙여주려는 간호사에게 사진 붙이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 온 남편은 주차장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꼬옥 안아주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토닥여주면서...

그 날 밤 10시 반 무렵, 분만실도 아닌 분만대기실에서 울지 않는 아가를 유도 분만으로 낳았다. 대기실 밖에서는 세상 밖으로 나와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자궁수축제를 넣고 진통을 겪고 새우등 자세로 척추마취를 하고 겪을 것을 다 겪어도 울지 않는 아가를 낳게 되었고 20주를 자란 소중한 딸을 보내주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었고 이 날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위안은 우리 딸이 엄마 아빠 덜 힘들라고 오래 걸리지 않아 나와 주었구나였다.

그렇게 아가를 보내주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렇게 적막할 수가 없었다. 이 집 안의 풍경, 공기, 분위기 다 모두 그대로인데 나만 달라졌었다. 내 뱃속에 아가만 없어졌다. 시간을 오롯이 보내는 것 자체가 고통인 나날들이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남편 퇴근 시간만 다가오길 기다리며 지냈다. 같이 많이 울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마음을 달래려 여행도 다녀

오고 그렇게 회복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지체할 겨를도 없이 네 달 뒤 병원을 옮겨 다시 시험관 시도를 했다. 채취되는 난자 개수가 갑자기 적어져 겨우 한 두 개였고 그마저도 수정 자체가 안 되기 시작했다. 다시 검사한 난소 수치 amh 0.09 이제 정말 폐경에 가까워져 있었다. 마음이 조금씩 연달아 시험관을 했지만 계속 수정실패 분열 멈춤.

난자빼기... 내 몸이 이 지경이 되어 시험관 진행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이 날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고 멘붕이었다. 어렵게 어렵게 난자를 채취해도 배아가 생성되지 않으니 이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새로운 마음으로 첫 아이를 임신했었던 병원으로 전원하여 시험관을 다시 시작하였고, 어차피 난자가 나와도 수정이 안 되거나 분열이 안 되는 등 배아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이번에는 처음으로 과배란을 전혀 하지 않는 자연주기 요법을 해보기로 했다.

생리 6일째에 내원했어도 난포는 보이지 않았고 그 뒤 난포가 하나 보였으나 자라다 말고... 다시 또 새롭게 자라나는 난포 한 개만을 보고 그 난포를 채취하기로 했다. 채취 후 내 손에 쥐어진 종이에 적힌 난자 개수는 2개. 별로 기쁜 것도 아니었다. 그 때만 해도 '웬일로 2개? 자연주기인데? 그래 봤자 질이 안 좋거나 그래서 수정도 잘 안 될텐데 제발 한 개라도 수정이 잘 되길 빌자!'라는 마음이었다. 집에 와서도 수정이 되었을까, 분열이 되고는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었는데 병원 어플에 수정된 개수가 2개라고 뜨자 왈칵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렇게 많은 시험관을 하면서 임신 실패의 경험도 참 많았지만 수정된 배아가 2개라는 소식에 울음이 터지다니... 과연 이 배아들이 잘 버텨주어서 무사히 이식을 할 수 있을까 걱정 반 설렘 반이었다.

이식 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난자 채취까지의 과정이 참 어려웠는데.. 채취 당일엔 보니 성숙 난자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까지 채취했고 다행히 수정이 잘 되어서 배아 두 개 모두 다 상급입니다." 뭘 듯이 기뻐다. 도대체 얼마 만에 배아 두 개를 이식해보는 건지 이식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기뻐다. 또다시 3시간 반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음악을 들으면서 오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피검 날, 병원이 멀어 집 근처 난임 병원에서 피검을 했다. 이식이라는 것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기뻐기에 임신 여부는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원장님 목소리. "피검수치 373 임신 확실합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어안이 병병해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 옆에 있던 남편은 내가 손으로 오케이 모양을 만들어 보이니 눈이 그렇그렇게졌다.

유산 경험이 있던 터라 며칠 후 전문 병원에 따로 내원했는데 갑자기 초음파를 보자고 했다. 4주 4일이었던 그 날, 아기집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너무 불안했는데 뚜둥! 아기집이 두 개였다. 쌍둥이라니! 머리가 멍했다. 난자가 서너 개씩 나오고 수정률 100%에 최상급을 2개씩 넣었던 시절에도 안 되던 임신이, 수정도 안 되고 분열도 안 되어 겨우겨우 자연주기로 나온 난자 그것도 우연찮게 두 개 나온 난자가 모두 수정, 착상되어 쌍둥이로 찾아와 준 것이다. 쌍둥이 임신은 더 위험하다던데... 실제로 위험하기도 했다. 초기 출혈도 있었고 후동이 목투명대가 두꺼워 융모막 검사도 했고 자궁경부무력증으로 백수술도 받았고 조기수축으로 3개월가량 대학병원 고위험산모실에 입원한 끝에 36주 4일 건강한 모습으로 동이를 만났다. 지금은 백일이 훌쩍 넘어 방긋방긋 웃고 웅알이에 뒤집기까지 선보이는 사랑스러운 동이로 자라고 있다.

나보다 훨씬 어려운 케이스들도 물론 많겠지만 나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시험관은 보통 서너 차례 안에 대부분 성공한다던데 나는 난소기능이 떨어져 있긴 했으나 내막도 좋았고 나이도 어렸고 배아도 거의 항상 상급이었는데도 임신이 잘되지 않았다. 주변에서 좀 쉬어라 몸 상한다 등등 걱정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아이를 품기 위해 정말 주구장창 매달 시험관에 매달렸고 그 결과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이 귀한 쌍둥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많은 난임부부들 중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 부부보다는 더 나은 부부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나도, 정말 이런 나도 우여곡절 끝에 임신 출산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기를 만나기 위한 여정에 부디 덜 지치시고 덜 힘들게 걸어가시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긴 터널 끝에서 사랑스러운 아가라는 빛을 만나게 될 거라 믿는다.

## 다시 또 한 번 더

입선- 김OO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도운이 아빠입니다. 난임으로 고생했던 3년 10개월의 세월이 어느덧 희미해져가고 아내와 저는 이제 막 14개월 정도 된 아들을 키우며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저희도 난임으로 힘들었기에 그 힘들었던 순간의 기억을 더듬어 성공수기라기엔 너무 거창하지만 담담히 그 당시의 저희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긴 연애를 하고, 결혼했기에 서로의 건강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20년 가까이 매달 해오던 생리가 갑자기 안 나오다 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같이 가본 병원에서는 신혼이니 생리를 기다려보고 아니면 임신일 수 있으니 마음 편히 가지라더군요. 그런데 그러고도 3개월 정도 더 안 나오니 병원에서는 피검사를 권하더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난임병원을 조심스럽게 권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아내는 많이 울었습니다.

난소기능저하로 임신이 어렵고, 2세 계획이 있으면 서두르라고 하더군요. 기능이 0에 가까운 수치라고 시험관 시술을 권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떨떨하고 저도 같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아이를 하나, 둘 낳을 때도 우리가족의 평범한 미래를 꿈꿨던 저로서는 믿기도 어려웠고 양가어른들께는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머릿속은 복잡하고 답답한데 누구에게 털어놓기에는 더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힘없이 낮을 놓고 있거나 우는 일이 잦아진 아내는 저에게 이혼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에 아내까지 그러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힘들보다 아내가 더 상처받고 힘든걸 알고, 또 느껴지기에 괜찮다고 당신만 옆에 있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정말 힘들었을 테니까요.

마음을 추스르는게 급선무였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급한 마음과 달리 생리가 안 나오니 시험관 시술도 미뤄지고, 답답함이 최고에 이르자 서로를 할퀴는 날카로운 말들도 많이 오갔습니다. 제가 더 참고 제가 더 다독여야 했는데 저도 반복되는 우울감에 힘들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던 아내가 강아지에게 마음을 열고, 강아지에게 마음을 주며 사뭇 육아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챙기고 산책을 해주며 조금씩 아내는 예전의 밝음을 되찾아 가는 듯 했습니다. 퇴근하고 아내와 강아지 '송이' 이야기를 하며 같이 웃고, 같이 산책하고 조금씩 시험관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덜 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아니었나봅니다. 지나가는 아이를 뺨히 보기도 하고, 티비에 아이가 나오면 애써 담담한 듯 보이지만 힘든 기색도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첫 시험관 일정이 정해지고 처음해보는 배우사에 둘 다 겁쟁이라 덜덜 떨면서 겨우 해내곤 했습니다. 약 부작용인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 고생을 하고, 호르몬제 탓인지 감정 기복도 커졌습니다. 시험관 시술의 힘들음 오롯이 견디는 아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술이후 집안일을 제가 담당해서 하고, 착상에 좋다는 아보카도, 추어탕, 전복 등등 챙겨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쓰다 보니 딱딱해지기도 아내가 그 힘들음 다 짚어준 것에 비해 제가 해준 것이 별로 없네요. 그저 아팠던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들을 묵묵히 들어주고 언제든 힘들면 그만되도록 괜찮으니 아내 몸을 챙기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여름, 아내가 난임캠프를 같이 참석하자고 이야기를 꺼내기에 저도 처음 들어보았지만 아내가 원한다니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여러 부부들을 보며,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처지이고, 그 힘들음 공유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고 저녁에는 지인에게는 털어놓지 못했던 각자 속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껴본 감정과 신기했던 광경은 잊히지가 않네요.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며 괜찮은 척, 담담한척 했지만 결국 많이 힘들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 분들과도 이야기를 하며,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며, 어떤 것이 난임에 좋더라 등등의 정보교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차수도 아니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보자.' 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인

공수정 2회, 신선 5회, 동결 1회 등 8번이 넘는 시술에 돈도 천 만원은 우습게 깨지고, 약값에 병원비에 정부지원을 받아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난임 관련 정부의 혜택이 예전에 비해 더 좋아졌음을 알게 되었고, 난임관련 기사에도 제가 촉각을 세우고 알아보곤 했습니다. 우리의 가계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해서요. 지금은 조금 더 지원해주는지는 하지만 여전히 고차수의 시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한번, 두 번, 점점 횟수는 늘어만 가고, 실패라는 말만 7,8번 듣고 나니 칠전팔기의 정신은커녕 이제 결과 나오는 날이면 기대보다 어떻게 위로해야할지를 걱정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다'는 의사에 말에 경주마처럼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던 우리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친 아내가 '이제 그만 하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힘들고 아픈 시술 못하겠다고 서럽게 울더군요. 그때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면서 이제 그만하자고 당신 너무 힘들면 하지 않아도 좋다고, 난 둘이 살아도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차라리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 이야기로 슬퍼하거나 시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험관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내는 업무 중 시술이나 일정조절로 안 좋은 소리도 몇번 씩 듣고, 생리주기에 맞춰 시술하다보니 중요한 일과 겹칠 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인지 시술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과 병행하면서 시험관 시술 한다는 것은 잠시 조퇴해서 검사하는 저와는 다르게 업무에 방해가 컸기에 아내는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몸도 마음도 너털너털해 졌었거든요.

힐링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틈이나는 대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경치보러 멀리도 가고, 미뤄두었던 해외여행도 회사누치 안보며 실컷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퇴사한 뒤 망가진 몸을 보며 매일같이 우울해하더니 운동을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는 함께 운동하거나 강아지와 함께 산책도 하고 바쁘게 지내니 시험관을 시작할때 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운동도 하고, 바쁘다고 자주 거르던 식사도 매끼니 챙겨먹고, 영

양제도 틈틈이 먹으니 아이가 없는 것 말고는 삶의 질이 더 올라간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임신이라고... 얼떨떨하고 너무 기뻐서 난임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자 임신은 맞는데 피가 비친다고 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생리를 하고 그전보다 더 힘들어하던 아내를 또 위로해줄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렸습니다. '임신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주변에는 임신 잘만 하던데...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하며 새삼 생명을 잉태하는게 이토록 힘든 일임을 깨닫고 임신을해도 10달간 안전하게 품고 지키는 것 또한 힘든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내도 한참을 울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이내 기운을 차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새롭게 일도 시작하면서 활력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2달 뒤에 또 자연임신이 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확인하는 순간 바로 난임병원으로 달려가 유산방지 주사 등 필요한 처치는 다 받았고, 임신 확인한 순간부터 출산 전까지 무시무시한 입덧을 경험하고도 무사히 10달을 채우고 OO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기간 대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시기였네요. 우스갯소리로 애 낳을 때도 마스크 끼고 출산 하는거 아니냐했는데 정말 현실이 되어서 참 무섭고 걱정이 많았으나 다행히도 아이는 태어난 이후로 별탈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는 욕심조차 내지 못했던 아이가 생기니 여태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슴 벅차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해서가 아닌, 누구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에 지금 이순간이 얼마나 가치있고 행복한 순간인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듣던 절망적인 말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아이는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아이를 갖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시간들이 지금 와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간 덕분에 지금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그 순간들이 나중에 '그땐 그랬지, 행복해지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었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

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 저희도 생각지 못한 순간에 아이가 찾아와 부모가 되었듯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예비 부모입니다. **조급함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심포 같은 휴식을 본인에게 선물하세요. 아무래도 시술 과정에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피폐해져 가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오롯이 아내가 견디는 아픔에 남편으로서 남은 삶의 동반자로서 공감해주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남편분들이 정신적 지주가 되어 아내분들을 더 위한다면 굳이 임신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부관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관시술을 하며 몸과 마음 모두 지치신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이 모든 행위들은 자신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남을 위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등등 다른 이유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지고 또 좌절하게 되는 긴 싸움이라구요. 이 난임이라는 녀석이요. 길게 보시고 내 몸을 위해 투자하고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려고 생활패턴을 변화시켜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나는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부모가 될 것이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빨리 부모가 되느냐 늦게 부모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꼭 건강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애가 태어난다고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낳고 또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챙겨주려면 체력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사랑스러운 둘째를 기다리면서 다시 또 한 번 난임가족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를 보며 저희도 행복해지니 아이를 더 원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몸을 생각해 시술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오늘하루도 부지런히 일과 육아를 병행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제 좌우명인데요. 마음먹은 대로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와 이 글을 읽으실 분들 모두 '된다 된다 꼭 된다'는 마음으로 꼭 천사 같은 아이를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번의 두드림, 마침내 나에게 파랑새가 날아왔다! (신선만 12차 만에 첫 착상! 첫 임신! 첫 출산!)

입선- 김OO

드디어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했던 수많은 날들... 매일매일 난임카페에 들어가 성공후기를 읽으며 희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난임카페 성공후기를 남겨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7살 김OO 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 5월에 결혼한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불행이 저에게 올 것이라고는... 결혼 후 바로 아기 계획이 있어서 동네 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당시 산부인과 의사는 1년 이내 자연임신 가능성이 높으며 자연임신을 권하였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1년 안에 당연히 임신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그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배란일을 맞춰가며 자연임신을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써버린 시간이 2년. 그제서야 의사는 난임병원 권하더군요. 난임? 무서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익숙하지 않는 단어였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2018년 2월에 대전의 유명한 난임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검사에서 별 다른 이상소견이 없어서, '별일 없겠지... 별일 없을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를 받으러 간 날,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의사는 어두운 얼굴로 저를 쓰윽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난소기능저하입니다. 자연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바로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합니다." 난소기능저하... 그게 뭐지?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AMH 수치는 0.58이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건강한 난자는 거의 배출이 되었고, 남아있는 난자수가 적고, 오른쪽 난소가 보통 난소 크기의 1/3로 매우 많이 작아져 있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2년 8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 난임 사실을 받아들이며 2018년 9월 회사에 휴직계를 내게 됩니다.

2018년 10월 다시 찾아가던 대전의 난임병원에서 첫 시험관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기요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약을 많이 써 봤지만 난포는 겨우 3개뿐이었고, 그나마도 난자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2개 이식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첫 시험관이 끝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곧 임신이 되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험관 시술은 확률이 높고, 대부분 1~2번 안에 된다고 하니 나도 곧 엄마가 되겠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고 2019년 1월 다시 병원 찾게 됩니다. 과배란으로 난소가 많이 부어서 3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해서 3개월이 지나자마자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난소기능저하라 약을 많이 써도 난포가 많이 생기지 않으니 약을 적게 쓰는 저자극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난포 3개 중 2개만 수정되고 2개 이식했지만 난자질 탓인지 연이어 착상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뭐 이번이 두 번째이니까, 건강보험 지원이 5회인데, 그 안에 무조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실패하고 나니 병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시험관 시술횟수로 톱3 안에 든다는 대구의 유명한 난임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삼신할배라 불리는 원장님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솔직히 말씀하시더군요. 시험관을 해도 임신확률이 낮다, 난소크기가 매우 작다, 곧 조기폐경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해보자! 원장님을 믿고 하자는 대로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대구에서 3차 시험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시 약을 적게 쓰는 저자극 요법으로 진행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난포가 6개가 나왔고, 그 중 4개가 수정되었다고 하니, 역시 삼신탈배라 불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중 2개를 이식했고, 나머지는 더 키워보고 냉동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배아상태도 상급이고, 자궁내막도 좋다고 했으니까요. 드디어 되는 것인가.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분명히 잘 될 것 같았는데, 1차 피검사 결과는 임신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자질 탓인지 냉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수에서 희망을 보았고, 한 달 쉬고 바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4차 시험관을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똑같은 저자극 요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달에는 난포 1개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진행했습니다. 1개 채취, 1개 이식. 그마저도 미성숙 난자라 하루 더 배양해서 성숙시켰다고 했습니다. 질은 중급이었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4번의 실패를 겪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5번째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한 달 쉬고, 2019년 7월, 5번째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저자극이었고, 4개의 난포가 나왔고 그 중 2개 수정, 2개의 배아를 이식했지만, 결과는 또 또 또 실패였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부지원은 끝났고, 삼신탈배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위로를 받고 싶어 희망을 얻고 싶어 난임카페에 가입하게 됩니다. '아가야 어서오렴'이라는 난임카페인데, 카페 글을 읽으며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며 위로를 많이 받았고, 성공후기를 보며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던 중에 삼신탈배 원장님이 병가를 내게 되어서 더 이상 대구 난임병원에서는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신탈배 원장님 믿고 대구로 다닌 것인데, 그분이 안 계시니 대구로 다닐 이유가 없어졌어요. 정보를 수집해서 난소기능저하로 유명한 서울의 한 난임병원으로 옮겼습니다. 2019년 9월, 6차 시험관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자극이었고, 4개 채취, 2개 수정, 2개 이식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착상실패. 분명히 배아상태도 좋다고 했고, 자궁내막도 좋다고 했는데, 왜 착상이 안되는 것일까. 나는 난자질도 안 좋는데, 착상도 안되는 몸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착상이 되지 않았던 터라 걱정과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차수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1년 휴직계를 내고, 9월에 복직하면서 시험관을 같이 진행하다보니, 대전에서 서울로 병원 다니기가 여간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 새벽 첫 기차를 타고 가서 진료 받고, 대전으로 내려와서 오후 출근을 해야 하는데,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몇 번이나 기차표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고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다음 순번이 내 차례인데 부르지 않는 겁니다. 기차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조금해지고, 데스크에 물어보니 원장님이 시술하러 가셨다고 하네요. 그때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정말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복된 착상실패로 자궁내시경 권유받았고, 그 후 2019년 11월 시험관 7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주기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연주기는 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난포 크기를 자주 확인하고 난포가 터지기 전에 채취해야 해서 대전-서울 더 자주 오가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채취 날이 되어 갔는데, 이미 조기배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허탈하고 허무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오가며 다녔는데, 채취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힘이 빠졌습니다. 이날도 병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7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2019년 한 해가 지나갔어요. 서울로 다니다보니 많이 지친 탓에 회사 다니면서는 서울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은 무리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대전의 난임병원에서 7차 시험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2020년 1월입니다. 난포 2개 채취, 2개 수정, 배아 2개 이식, 결과는 착상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지원 7차까지 모두 소진했지만, 저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2020년 3월 대전에서 다시 8차에 도전했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난포 1개 채취했지만, 이번에는 수정실패라고 하네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수정까지는 되었는데, 수정실패라니.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확률은 떨어지니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격 달에 한 번씩 진행하며 쉽 없이 달려온 시간, 숨 고르지 않고 뛰어온 시간, 마음이 조금할수록 돌아가야 했는데, 전략질주를 하다 보니 모든 게 어긋난 걸까요.

이때 처음으로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쓸수록

신은 나를 절벽 끝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쯤 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날 수 있을까? 이 터널의 끝이 있긴 있는 것일까?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다시 용기를 얻어 다시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어요. 시험관을 잠시 쉬며 내 몸을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2020년 4, 5, 6월 3개월간 여성 한의원을 다니면서 한약도 지어먹고 침, 뜸, 좌훈, 화주 치료를 받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마음을 다독여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보살펴주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한국난임가족협회의 된된꼭 프로그램입니다. 난임카페를 통해서 난가연을 알게 되었고, 보듬이 사업으로 시험관 시술 1회를 지원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난가연을 처음 방문했고, 난가연에서는 시험관 시술 전에 된된꼭 프로그램을 8주 실행해보고 시험관 시술할 것을 권했습니다. 마침 3개월 동안 심표를 찍기로 했던 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된된꼭 일지를 쓰면서 식단관리, 운동관리, 수면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좋았던 것은 하루를 마치고 매일 저녁 하루 마음일지를 썼는데, 하루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나 자신을 칭찬해줬던 것이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게 컨디션을 조절하며 멘탈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8주간의 된된꼭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지만, 임신이 될 때까지 나만의 된된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2020년 7월 보듬이를 진행하려고 대전의 한 난임병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의 검사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MH 수치는 2년 전보다 더 떨어져 0.2까지 내려갔고, 의사는 어두운 얼굴과 말투로 시험관 시술을 해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무료로 진행되는 시험관 시술이라지만, 그런 의사를 믿고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시험관 시술은 의사의 확신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난가연에 연락해서 보듬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9차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서울의 난임병원을 찾았습니다. 대전과 서울을 오가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대전보다는 성공가능성이 높겠지 싶었거든요. 이때는 내 몸이 힘들어도 시험관 성공만 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세

달을 쉬는 동안 식사, 운동, 수면 등을 관리하며 규칙적인 생활도 했고, 한의원을 다니며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으니, 이번 시술에 거는 기대가 좀 컸습니다. 하지만 9차도 수정실패. 미성숙 난자는 아니지만 미세수정 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엄마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사방이 막힌 어두운 곳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빛이라도 보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그 어둠속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또 수정실패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는 사방이 막힌 곳에 갇힌 저를 누구라도 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병원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가는 것처럼 병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난자질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언제 슈퍼난자가 나올지 모르니 쉬지 않고 시술을 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격달로 해오던 시험관을 매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10차까지 와 있더라고요. 2020년 8월, 다시 대구의 난임병원으로 병원을 옮기게 됩니다. 삼신할배는 없지만, 대구병원은 배양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질 낮은 나의 난자를 어떻게든 수정시켜 줄 것만 같았어요.

2020년 8월, 9월, 10월에 대구에서 10차, 11차, 12차를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10차는 배아글루, 미세수정, 보조보화술, 난포배양액까지 배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어요. 하지만 착상실패로 끝났습니다. 10차 정도까지 하면 한 번 정도는 착상이 된다는데, 저는 한 번도 착상수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차는 난포가 2개 보였지만 채취 날 한 개는 조기배란 되었는지 난포크기가 작아져 있었고, 다른 한 개는 채취했지만 난자질이 좋지 않아서 수정 후 분열이 멈췄습니다. 이식도 못해보고 11차도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차, 솔직히 말하면 다른 차수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난포 1개가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왼쪽 난소에서만 난포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난소에서 난포가 1개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왼쪽에서만 연달아 채취하다보니 왼쪽난소를 쉬게 하려고 오른쪽 난소가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서 자란 난자가 슈퍼난자였습니다. 정말 그달 그달의 난자는 복불복인 것 같아요. 바

로 전달까지만 해도 수정실패한 난자가 나왔는데, 이달에는 슈퍼난자가 나와서 임신까지 되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차에 딱 한 개 나왔는데 임신, 그리고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순간이 저에게 왔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길의 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론은 폐경될 때까지 해보자였어요. 폐경 되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습니다. 아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옵니다. 대신 노력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면서 병원 열심히 다니다보면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저는 난임을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난임 때문에 저의 다른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틈틈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보씩 걸었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고, 하루 세끼 잘 챙겨먹고, 10시 이전에는 취침하여 하루에 8-9시간은 꼭 챙겨서 잤습니다. 난임 극복하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덕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아기가 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임신기간 내내 일 다니면서 난임 기간과 똑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임신기간에도 매일매일 만보씩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가진 아기가 혹시 떨어질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아기는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착 붙어서 임신기간 내내 어떤 이벤트도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기 갖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었을 뿐, 저는 임신기간 매일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2020년 10월, 시험관 12차에 성공하여 2021년 7월 소중한 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기의 태명이 '파랑이'였습니다. 파랑새의 파랑이... 멀리 있는 것 같았지만 가까이에 있었던 파랑새의 기적처럼 우리 아기 파랑이가 그렇게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파랑새가 꼭 날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세 번의 시험관시술, 한 번의 기적!

입선-정00

난임.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나오는 거리가 먼,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부부가 난임으로 고생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지금껏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고, 나 역시 취미로 마라톤대회에 나갈 만큼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은 단순히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주변 지인들은 “두 사람이 너무 금슬이 좋아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라며 결혼 후 4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우리 부부를 위로했다. 양가 부모님들은 대놓고 내색을 하진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였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아내를 볼 때면 하늘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결혼 5년차가 되니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졌다. 아내나 나나 늦은 나이였기에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자연임신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상의 끝에 우리 부부는 유명한 난임 병원을 찾아가 이런 저런 검사들을 받아보기로 했다.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었다. 내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그럭저럭 평균치에 가까웠지만, 아내는 나팔관 양쪽이 다 막혀 있었고, 난소도 임신이 어려울 만큼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아내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똑똑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았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 부부에게 “두 분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한번 시험관 아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세히는 몰라도 시험관 시술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기에 우리 부부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긴 시간을 두고 어렵게 고민한 끝에 결국 시험관 시술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본격적으로 시험관 시술이 시작되자, 아

내는 정신적으로 꽤 힘들어했다. 나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마음을 다독여주었다. 조금이라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했다. 시험관 시술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로지 우리 두 사람을 꼭 닮은 건강한 아이를 갖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임신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냉혹했다. 우리 부부는 첫 시험관 시술에서 임신에 실패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며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연이어 시도한 두 번째 시험관 시술에서도 실패를 하자, 그간 힘겹게 버텨온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자고 만류하는 나에게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며 설득했다. 아내의 두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시도해보기로 약속했다.

반년 정도 몸을 추스른 후, 우리는 세 번째로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다. 그 과정은 사실 전보다 더 어려웠다. 이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시험관 시술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도 임신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 부담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낸 우리 부부는 마침내 임신 테스트기에서 꿈에 그리던 두 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로 달려갔고, 곧바로 임신이라는 소견을 전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믿기 힘든 기적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뱃속 아이의 심장소리를 처음 들던 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후 불거진 갖가지 문제들로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지내야 했다. 시험관으로 어렵게 가진 아이여서 그런지,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투성이였다.

먼저, 임신 10주차에 원인 모를 출혈이 일어났다. 의사는 유산기가 심해 2~3일 내에 유산이 진행될 수 있다며, 2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아내가 약을 먹고 유산방지 주사를 맞으며 입원 치료를 받는 내내 나는 근심과 기도 속에서 지냈다. 다행히 출혈이 멈추고 유산기도 수그러들어 정상적으로 퇴원을 할 수 있었다. 13주가 되어 제법 몸과 머리의 형태를 갖춘 아이의 모습을 초음파를 통해 보았다. 그날 곧바로 1차 기형아 검사가 이뤄졌는데, 뜻밖에도 아이의 목덜미 투명대가 정상범위(3mm)보다 높은 3.61mm로 나왔다. 이 수치는 다운증후군이나 심장 기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행복한 상상을 해야 할 그 순간에 아내와 나는 근심과 걱정 속에 파묻혀 지냈다.

피검사를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2주일을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기형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 19분의 1 확률로 다운증후군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나왔다. 의사는 아내에게 양수검사를 권했다. 검사를 받는 내내 적은 확률이지만 유산 위험이 있다는 말에 무섭기도 했고, 확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악몽 같은 2주가 흘렀다. 모든 염색체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는 병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은 채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고난은 우리를 쉬이 놔주지 않았다. 임신 6개월이 됐을 무렵, 아내는 아랫배에서 낫선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다. 마치 아이가 배속에서 아랫배 깊숙한 곳을 다리로 툭툭 건드리는 것 같다고 했다. 배속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는 곧장 산부인과로 향했다. 초음파를 보는 의사 선생님의 깊은 한숨 소리. 좋지 않은 느낌은 빛나가는 법이 없었다. 자궁경부 길이가 0.3cm밖에 남지 않았으면서 아이의 다리가 자궁 입구까지 나와 있다고 말했다. ‘자궁경부무력증’이었다.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 자궁목을 병합하는 맥도날드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슬퍼할 틈도 없이 근처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날 오후 바로 응급수술이 이루어졌다. 출산할 때가 아니어서야 누구인들 배속에 아이를 품은 채 수술대에 오르리라고 상상이나 해보았겠는가. 그저 황당하고 비통한 마음뿐이었다. 수술은 부분마취로 진행되었다. 나는 수술이 진행되는 40여분 동안 혹시 아기가 아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마음 졸여야 했다. 아무 탈 없이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지만, 아이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는 꼼짝 없이 누워서 지내야만 했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꼬박 하루에 23시간을 누워서 지냈다. 매번 밥을 먹자마자 바로 눕다보니 아내는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지만, 아

이를 위한 일기기에 전혀 힘들지 않다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보다 못한 나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아내 곁에서 잔시중을 들며 집안일을 처리했다. 마트에 들러서 장을 봐 식사를 준비했고, 빨래나 청소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냈다. 틈틈이 아내 곁에 누워 아이의 태동소리를 들으며 아이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내의 배 위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노라면 배속에서 매일 조금씩 자라는 아이의 숨결이 손바닥을 통해 내 가슴으로 전해졌다. 손바닥 위로 태동하는 아이를 느낄 때면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들곤 했다. 남은 3달을 꼬박 누워서만 지내려다 보니 아내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려야 했고, 기존에는 없던 임신성당뇨도 나타났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우울증까지 찾아와 매일 눈물이 마를 틈이 없다. 나는 지칠 대로 지친 아내에게 “우리 여기까지 잘 이겨냈잖아. 내가 당신한테 힘을 실어줄게,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자.”라며 다독였다. 그리고 배속 아이에게도 “아가야, 너를 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아빠랑 엄마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우리는 끝까지 잘 견뎌서 무사히 너를 낳을 거야. 우리 꼭 건강하게 만나자!”라고 말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한 우리 부부는 얼마 후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었다. 우리의 모정(母情)과 부정(父情)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해준 힘의 원천이 돼주었다.

아이도, 아내도, 나도 지금까지 힘을 발휘해 잘 버텨준 게 너무 대견하고 고맙다. 천사 같은 아이의 온기와 생기, 손짓과 눈웃음 등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저 꿈만 같은 지금이다.

##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찾아온 아기 천사

입선-김OO

100일이 지난 아가를 모유수유 후 잠을 재우고 조용히 난임 성공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육아가 험난하지만 아기를 바라보며 어디에서 이런 천사가 결혼 10년 만에 찾아왔는지 매 순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초보맘입니다.

전 결혼 8년 동안 임신, 출산을 포기하고 살았던 난임인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시간을 쪼개 결혼 준비하랴 바쁜 생활을 하다 얻은 골반염. 처음엔 감기처럼 지나가는 질환이라 생각을 했지만 걸어도 낫지 않는 진동만으로도 자궁이 울리고 매일 매일 항생제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기본 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결혼식 전날에도 응급실에서 항생제 투여, 신혼여행 후 귀국하자마자 병원 행. 내 발목을 잡은 골반염은 재발을 거쳐 급성에서 만성 골반염까지 진행이 되어 결혼 5년차까지 재발을 반복했습니다. 직장 퇴근과 동시에 응급실에 가서 항생제를 맞는 생활과 입·퇴원을 1년에 3달 정도 지속했고 주사를 더 이상 놓을 곳이 없어서 발등까지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결혼하자마자 받은 원인불명의 난임 판정.**

골반염을 치료해주었던 주치의가 결혼 1년도 되지 않은 신혼기에 난임 센터를 가서 치료하라며 준 진단서에 원인 불명의 불임이란 진단명을 써 주었을 때의 충격이란. 그 시절엔 불임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골반염이 계속 재발했기에 자궁에 유착이 의심이 되어 임신을 위해서 무조건 시술을 받아야한다고 했지만 시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임신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땐 임신이 문제가 아니라 자궁을 떼어낼 정도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기에 임신은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담당의는 항생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3가지 미

션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삼시 세끼 식사 제때 챙기기, 주기적으로 운동하기, 스트레스 조절하기. 그 시절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생활 수칙이었고 듣고 가능해요? 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속된 치료에 지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3년차부터 일을 줄이고 새벽 운동으로 등산을 다니며 의사가 알려준 수칙을 지키며 면역력을 키워 재발하는 횟수를 줄이게 되었고 골반염과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건강해졌으나 남편은 내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되었으며 임신을 위한 시술이 여자에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며 시술을 거부하며 양가에 둘만 잘 살겠더라며 딩크 선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픈 머니리를 지켜보며 불임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 시댁 어른들의 뒷말을 듣다 못한 남편의 방어책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여행과 취미생활에 집중하고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승진도 남들에 비해 빠르게 단계를 밟아가며 생활 영유하며 각자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만성골반염의 재발은 1년에 1, 2번으로 줄었으나 질염이라도 걸릴 시엔 악화되어 골반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에 직장 근처에 잘하는 부인과 선생님이 있다해 추천받아 간 곳이 알고 보니 난임 병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35살부터 인공수정부터 시작해보라고 권유하셨지만 매번 미소로 답하며 답을 미뤄가던 중 38살에 갑자기 21일로 줄어든 생리 주기에 놀라 난임에 대해 검색하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껴 난임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골반염으로 인한 유착이 없었다고 amh도 다행히 2.1로 제 나이대로 나왔기에 시술만 하면 금세 임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인공 2회, 시험관 시술 2회 만에 임신이라는 피검 수치를 받았지만 아기집에는 아기가 없었고 밤새 하혈을 하며 유산을 했습니다. 시술을 받으면서도 회사에 폐를 끼치지 싫어 채취, 이식한 날도 근무하며 임신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내 마음과는 달리 유산을 경험했고 내 몸이 임신과 일을 병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남편의 판단 하에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갑자기 매일하던 업무도 임신이라 기뻐하며 기다리던 아기도 없던 하루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어렸다면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매일 울며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온라인 카페에서 유산에 관한 글만 찾아 보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나 유산을 처음 겪어 보았고 내 인생의 최악의 실패라는 생각에 갇혀있었기에 혼자로는 이 어둠을 빠져 나올 수 없겠다 판단하고 난임과 관련된 교육들을 찾아보고 신청하며 하루의 일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두드린 곳이 중앙난임우울증센터였습니다.

처음엔 가야할까? 가지말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느새 마음 편하게 시선을 맞추어주고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치료의 절반이에요! 이 말 한 마디에 남편이 더 힘들어할까봐 울지도 못했던 저는 눈물을 펄펄 흘리며 내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 가장 든든한 편은 남편이나 남편도 처음 겪어본 유산이라는 실패에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끄끙 앓지만 했는데 처음본 상담사가 괜찮아요?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그때 감정은 어땠나요? 내 상황을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내 상황에 대해 객관화할 수 있게 도와주어 유산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단지 염색체 이상이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중 하나일 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힘을 얻은 뒤에 찾아간 곳이 난임가족연합회. 누군가 영양제 지원 사업이 있다 해서 신청하고 찾아간 곳이었는데 저에겐 무작정 달리기만 했던 시술 과정이 불필요했다는 것과 공허했던 내 삶에 노력할 수 있는 목표가 생겼던 난임 기간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DD맘 교육에서 특히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 전 생활습관에 대해 설명을 들던 중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회장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공수정을 하면서도 내 담당의는 나에게 왜 임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으며 시험관을 2차까지 진행했을 시에 5일배양 배아에 등급도 좋았으며 내막도 문제가 없었기에 내 몸이 아직 임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난가연 교육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당일에 기초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약국에 들러 체온계를 샀으며 마트에 들러 일반적으로 먹는 간장의 원료가 속이 탈지대두(수입)이라는 사실에 놀라 집에 있던 간장을 버리고 유기농 간장을 주문하였고 매일 아침 침대에 누워 체온을 재는 것은 귀찮은 일이었으나 한 달 측정 후에 내 기초체온이 36.3도로 낮으며 황체기에 고온기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기초체온을 올리기 위해 그동안 왕뜸과 침을 주 3회정도 주기적으로 받았기에 그 간의 방식을 유지해서는 내 몸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에 밀가루를 끊고 정지해놓았던 운동센터를 다시 시작하고 하루 만보 걷는 일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류유산 후 한달 만에 식단과 운동을 시작하고 두 번째 달에 바로 3차를 시작해서인지 배아 개수가 반으로 줄고 3일 배양에 등급도 낮아져 있었으며 담당의는 3번 이식한 결과를 보며 pgt-a를 해야 하며 더 이상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소견을 받고 좌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산 후 채취를 하며 내 몸이 이전과 같지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난소기능저하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으로 옮겨 상담을 받으며 나와 맞는 담당의를 추천을 받았고 담당의는 내게 뭐가 그리 조금하냐며 느긋하게 마음을 비우고 자연적으로 배란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앞으로의 진료 방향을 고민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간 쉬지 않고 매달 시술을 받아왔기에 시험관을 하며 왜 한 달을 쉬며 자연배란 확인을 하며 부부관계 날짜까지 받아야하고 결혼 9년차에 숙제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치부하였지만 초음파에 보이는 난포 하나도 아까웠던 시기라 두 번의 숙제 중 겨우 겨우 배란 당일에 숙제를 했는데 그동안 보이지도 않던 두 줄이 보이는 임태기, 하지만 화학적 임신이었던지 하혈을 시작했고 담당의는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아쉬워하였으나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에 꾸준히 자임시도를 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전원 후 amh가 2.1에서 1.1로 낮아진 것을 확인했고 그동안 신선이식으로 진행을 했기에 냉동배아이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냉동배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난포는 그 새 3~4개로 줄어들었고 과배를 해도 반응성이 적었기에 저자극으로 약을 최소화해서 진행했고 최대 4개를 채취해 1번 채취해 1번 이식할 양을 모았습니다. 신선은



진행하고 나면 다음 달에는 바로 이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지만 내 몸은 호르몬제의 영향으로 다음 달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배란이거나 높은 프로게스테론 수치로 다음 달 이식이 불가능했기에 1달 채취, 1달 쉬기, 1달 이식 이렇게 3달을 1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인공주기 이식을 진행했으나 빠르게 자라나는 내막 때문에 생리 11일차에 최상급 4일배아 3개를 이식했음에도 피검은 0, 두 번째 이식은 자연주기로 진행하고 싶어서 담당의의 만류에도 진행했으나 난포가 자라났음에도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음파를 여러번 봤으며 걱정되는 마음에 배란테스트기를 같이 사용했더니 테스트기에서는 배란 확인, 하지만 초음파상으로는 아직이라고 해서 의아해하고 호르몬을 피검으로 확인했더니 이미 배란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또 그 달은 이식을 못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음달에 자연주기 이식을 진행했으나 또 피검 수치는 0.

배아의 상태는 최상급에 자궁 내막도 교과서에 나올 만큼 이상적이라 담당의조차 이해가 안 된다고 한 피검결과였기에 지금의 방식으로 더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그동안의 1년간의 시술 결과와 의사소견과 배아 사진을 A4 2장에 정리해 타병원 시니어급 선생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메이저 병원의 대표 원장님은 내가 임신이 안 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는데? 3초만 쯤 초음파를 보고 별 문제없네, 난자가 왜 나에게 왔나 궁금해하지도 말고 내 방법만 따라와 내가 궁금해해서 뭐하게? 라고 말씀하시어서 진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와 평평 울기도 했고 다른 두 원장님은 nk수치가 12이기에 인트라리피드나 면역글로블린을 쓰며 지금까지 했던 저자극으로 진행하며 기존 프로토콜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세 분의 원장님을 만났으나 확신이 들지 않아서 생리가 시작하자마자 습관적으로 기존 담당의를 만나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본인만 믿고 따라오라며 pgt-a를 진행해보자 하셨습니다.

선생님 입에서 pgs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폭풍 눈물이 나며 머릿속으로는 몇 개 채취되지도 않는데 5일 배양까지 가고 염색체 정상까지 가능한 말인가 싶었지만 그동안 난자에게는 pgt-a를 권하지 않는다고 하셨기에 오죽하면 나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시술 방향을 의사와 매번 의논하며 정했는지라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방문한 병원. 하지만 초음파상 보이는 배아는 단 3개라 의사는 내게 현 상황에서 시술을 받기엔 최적의 컨디션이 아니기에 시술을 쉬고 자연임신 시도를 하라고 추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난임 시술을 받으며 가장 친했던 동갑내기 친구가 같은 의사에게 임신하고 초음파를 보던 날이라 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비교가 되어 담당의 앞에서 평평 울었습니다. 담당의는 매달 쉬지 않고 놀러 오듯이 병원에 방문하라고 했지만 주변에 들리는 임신 소식이나 내 난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지칩어 커서 담당의 앞에서 몇 번이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 1년간 혼자서도, 뒤편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몸을 만든다며 자제하며 살았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느낌이라 전원하며 처음으로 받은 휴식기에 인생이 뭐있나 싶어서 그동안 끊었던 커피, 밀가루가 포함된 식품을 매일 섭취하고 오전마다 다니던 헬스장도 정지하고 나름 내 기준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안 자던 늦잠, 낮잠도 자고 안하던 집순이 생활도 하면서 임신에 대한 생각을 떨치려 했지만 또 한달은 아쉬워서 때마침 불다방에서 받았던 배티기가 있어서 배란 확인을 하며 남편과 자연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사실 2달 전 1번만 더 시술을 받고 아니면 더 이상의 시술을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남편도 자극을 받았는지 밤에 즐기던 탄산음료와 간식도 끊고 같이 조깅도 하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줄어드는 체중과 몸의 변화를 보며 두달간 7kg를 감량하고 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기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시험관은 여자에게 안 좋다는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듣고 스스로 난임에 대해 검색하며 시술을 반대했던 남편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배란기 즈음 일찍 퇴근하고 부부관계에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9년차에게 난임은 익숙하나 자연임신 시도는 문외한이었기에 유튜브의 경우 일산 000 이00 원장님, 0000 한의원 이00원장님, 라헬 원장님 동영상을 보며 어떻게 해야 초음파를 보지 않고 최적의 배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공부를 했습니다. 난자의 경우 배란 후 난자가 건강하지 않아서 12시간 이내에 생존가능하다고 해서 배란 후보다는 배란 전부터 배란일까지 자궁에 최대한 정자가 살아있어야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해서 배

란3일전부터 배란일까지 매일 부부관계를 갖았고 남편과는 숙제를 하면서도 적은 확률에 연연해하는 우리 모습이 어이없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해보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배란일까지 관계를 갖은 후에는 다음 시술까지 쉼 날이 별로 없으며 자제했던 음식들을 더 즐기고 장거리 운전도 하는 등 쉬지 않고 놀았으며 황체기에 이렇게 놀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즈음 혹시나 몰라 해봤던 임태기의 두 줄... 허나 열은 두 줄에도 시약선이라는 생각에 왕복 100키로 운전을 하고 시택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에도 보이던 두 줄을 남편에게도 보여주었으나 전에 유산을 했던지라 남편은 더 진해질때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담당의는 임신 유지를 위해 질정과 아스피린을 임신 8주까지 처방해주었습니다. 자연임신이었으나 유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기가 건강하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전원을 하지 않고 16주까지 난임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다. 마지막날 전원 시에 담당의가 한 말이 시험관하면 다들 부부관계를 안하거나 덜하며 시술에 집중하는데 희미한 가능성이거나 자임은 언제든 가능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음을 많은 난임환자들이 알았으면한다였습니다.

결혼 10년차에 출산이라니 기적 같은 일이 내게 벌어졌으며 보통 임신을 위해 피사를 하면 나태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더 경과가 좋아지지 않는데 처음으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난임 판정을 받은지 8년, 시술 시작한지 1년 5개월만에 임신에 성공했지만 불투명한 미래에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올인을 해야하는지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차수가 쌓여가며 점점 늘어가는 것은 주변인들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에 누군가가 먹었다고 하면 주문했던 영양제와 무숙인들의 연락처였습니다. 가장 많이 복용했을 때는 1번에 과용량으로 복용하기 위해 15알이라 약으로만 배가 불렀으며 다달이 들어가는 영양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담당의는 내가 적어간 영양제 목록과 복용량을 보더니 하나씩 불필요한 것을 지웠으며 결국엔 남은 영양제라고는 엽산과 비타민D였습니다. 황당해하니 한번이라도 영양제 영향으로 난자질이 좋았던 적이 있나해 반박도 못하고 영양제 과잉 섭취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식단으로 영양소들을 먹기도 하고 제철 채소로 식단을 짜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가 바로 된뎀쪽 프로젝트를 시작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DD밥 교육 후 자극을 받아 나름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난임 카톡 채팅 모임에서 만나 개인적으로 연락하던 지인들과 함께 된뎀쪽 2020년 2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매일 적어야하는 식단과 운동일지는 밀리기 일수였지만 매일 아침 된다 된다 꼭 된다!를 외치며 자기 암시를 시작으로 하루 일상생활을 공유했으며 팀원들과 서로 응원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엄마가 되는 꿈을 같이 꾸었습니다. 현재 5명 중 두 명은 출산을 건강하게 했으며 나머지 조원들은 이전엔 없었던 화학적 유산과 계류유산을 겪으며 모두 임신 가능한 몸이고 임신 유지만 되면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난임 기간 동안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8주이지만 몸을 리셋한다고 생각하고 1번은 꼭 시도했으면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매주 3회씩 왕뜸을 떠도 올라가지 않던 기초체온이 0.2~0.3도 올라갔으며 황체기의 경우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생리 주기도 23일에서 28일로 늘어나 몸이 변화함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연임신을 하였고 지금은 출산을 했습니다. 임신 준비 중에 꾸준히 운동을 한 습관 덕분에 임신 막달까지도 매일 만보 걷기, 요가, 등산 등 3시간가량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며 매일 외쳤던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난임 기간 동안 꼭 했으면 하는 기초체온법과 배테기 사용! 난가연 회장님에게 2019년 11월 기초체온법 그래프 작성 숙제를 받은 후 꾸준히 기초체온을 재고 배테기를 사용해 배란 주기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시술을 받던 중에도 배테기를 통해 초음파를 통해 본 주기와 내가 측정한 주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담당의와 공유하며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이상함을 발견했으며 인공 주기에서는 이식을 했음에도 황체가 온다고 1주일 늦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미리 실패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다양한 환자와 케이스들을 보며 내 몸을 판단하지만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귀찮을 수 있지만 내 배란 주기를 파악하고 황체기가 37도로 2주간 유지가 되는 몸인지를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기초체온을 높이기 위한 식습관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난임이라는 고통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며 나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만들어 현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라 대면 교육이 적지만 난가연 DD맘, 뽀뽀맘 8주 프로그램, 뽀뽀맘 캠프! 중앙우울증난임센터 추천합니다.**

시험관 시술하며 성공률 30%라고 하나 확률 자체가 본인이 되면 100% 안되면 0%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 실패가 누적되다보니 머나먼 난임 터널의 끝은 존재하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1년에 몇 번이나 시술을 받을 수 있지? 혼자 달려보며 세고 이식 3번은 하나 허탈해도 하고 매번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희박한 확률이지만 휴식기에는 쉬지 않고 자연 임신 시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한 달이 아쉬운 내 주기, 그리고 난소가 하루라고 어릴 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시길 빌게요.

그리고 엄마만 포기하지 않으면 아기는 천천히 아장아장 걸어서 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올해는 다들 호랑이 띠 아가 품에 안으시길 빌게요! 아기는 꼭 옵니다. 된다 된다 꼭 엄마 된다는 아침마다 외치시길!



## Activity

| 2021년 단체 주요활동 |

아가야 프로그래밍 지원사업 .....	104
힐링캠프 .....	106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 .....	110

## ■ 아가야 프로그래밍 지원사업

### 1. 난임가족 자조모임 교육 “DD맘의 날”

**DD패밀리란? (D-Line Dream Family)**  
**자녀출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가족을 말함**

#### 🌱 추진배경

- 난임가족의 감정을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응원해 주는 지지모임으로서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에 대한 방향제시
- 난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원인과 시술 부작용, 증후군과 치료방법에 대한 근거 있는 정보제공
- 난임가족이 당면한 현재의 단계를 잘 설명해줌으로서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지도함

#### 🌱 추진내용

-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 모집대상 : 난임가족
  - 대상수 : 각 지역별 참석인원 10명 ~ 20명
- 수도권 지역
  - 일정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 모임 개최
  - 장소 :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교육센터

#### 🌱 성과

50명 모임참석(1월~10월)

### 2. 미세영양소 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체외수정시술 전 생식기 환경 최적화에 필요한 영양보조제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임신성공을 기대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임 가정에 나눔의 혜택과 안전한 임신성공을 기대함.

#### 🌱 추진내용(1월 ~ 10월)

- 난임가족 자조모임시 난임부부에게 미세영양소 지원.
- 연간 남성용 미세영양소 1개월분 166개 제공
- 연간 여성용 미세영양소 1개월분 166개 제공
- 연간 엽산제 3개월분 166개 제공

### 3. 임신·배란테스트기 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체외수정시술 전 준비과정에서 자연주기 임신을 시도하도록 유도
- 체외수정시술 중 배란 및 임신 체크에 도움을 줌

#### 🌱 추진내용

- 난임부부 임신·배란테스트기 제공
- 연간 임신테스트기 3개월분 166개 제공

### 4. 여성위생용품(면생리대) 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 큰 변화를 겪는 임신, 출산 시기에 환경호르몬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 추진내용

- 여성에게 여성위생용품(면생리대) 1세트 90개 제공

# 2021년 1박2일 힐링캠프

“된다! 된다! 꼭된다!”

## 목적

- 난임극복교육을 통해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기대함.
- 난임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출산을 향상 기대함.
-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난임부부의 아이 낳을 권리 향상과 복지환경 개선을 기대함.

## 목표

-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부부가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줌.
- 난임상담가와 난임전문의 강의를 통해 올바르고 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난임부부가 합리적인 임신 및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보조생식술 실패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전문적인 상담, 힐링 프로그램, 동료 멘토링을 통해 난임부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임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모집대상 : 전국 난임가족
- 모집방법 : 현재 난임을 겪고 있는 난임가족은 누구나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착순 우선 원칙 및 난임부부참여자 우대
  - 대상 수 : 120명
  - 장 소 : 힐리언스 선마을
- 행사일정

구분	월	모집기간	1박2일 힐링캠프	비고
1차	5월	2021.05.01~05.28	2021년 05.29(토)~05.30(일)	40명
2차	7월	2021.06.01.~07.02	2021년 07.03(토)~07.04(일)	40명
3차	10월	2021.09.01~10.15	2021년 10.16(토)~10.17(일)	40명



## 참가자 후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일이 난임인 것 같았는데, 제대로 위안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용기 뿐만 아니라 식 생김새에서 개선해야 할 유용한 정보들도 원기각 속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국년에 같은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난임 사람들을 위해서나 온라인을 통해서만 만나고  
상대적으로 번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아합니다.  
그럼 실컷만 번고에서 프로그램을 함께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인터넷 X, TV X, 번고 X ...)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고 더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난임의 시간이 길어져서, '원리까지 다가가 줄기' 난임을 극복할 수 있을지  
라는 의문점이 계속 생겼는데, 한강김포로 돌아와 다시 노력해보자라는  
마음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차별된 남편과 마더 아이라 태블릿 고민해왔던 시점에서, <sup>내 아이와</sup> 우리가 근자  
한 숙업인. 난임유언들을 알아본다 꼭산해가겠다 다짐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고관을 하는 사람들 만나고,  
서로 애를 나누며,  
\* 좋은 정보를 믿고,  
교육 + 힐링 + 음악의 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원천 난임 가족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가족만의 문제라 생각했던 난임에 대해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 한편가는 임신에 생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만 이 지옥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함께 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는  
공정하지 않은 기쁨의 힘과 원리들도 터널의 끝이  
인제가는 단단하여 에뮬야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행복한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원의 지지를 받고 힘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겠다는 마음먹이 다시 생깁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을 변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배운대로, 식이요법과 운동은 병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셔 더더정확한 임득수 입에서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 뭘 받았던 건보다는 좋은  
여러가지" 항상 프로그램 덕에 ~~난임~~ 믿고 다음에 힘마  
좋은 기쁨을 얻을 겁니다.  
\* 난임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만 꼭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은 참여했다는 거로  
감동 깊고. 여러가지 정보는 얻을 수 있지 꼭 감사합니다.  
좋은 강사. 많은 러. 맛있는 사나이 감동받았습니다.  
근 좋은 강사라 때 번고의고 부름다.



와이프가 느끼는 스트레스 고인을 알수 없는 시간이 없으며  
남편으로서 좀더 책임감 있게 ~~출산~~ 출산 관련 공부를  
하고 와이프 건강 상태를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 했습니다.



도쿄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어에서도 재고 입타를 당할 수 없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상과 각자 최후보다 남편에 실패득 아픈바탕안에 이복세간으로 내마음에  
최고로 해줄것이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공익사업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서는 아이소망 난임가정에 체외수정기술비를 지원하는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7회 모두 받고도 임신에 실패한 난임부부를 돕기 위해 25개 참여병원과 제약회사의 사회공헌으로 이루어진 공익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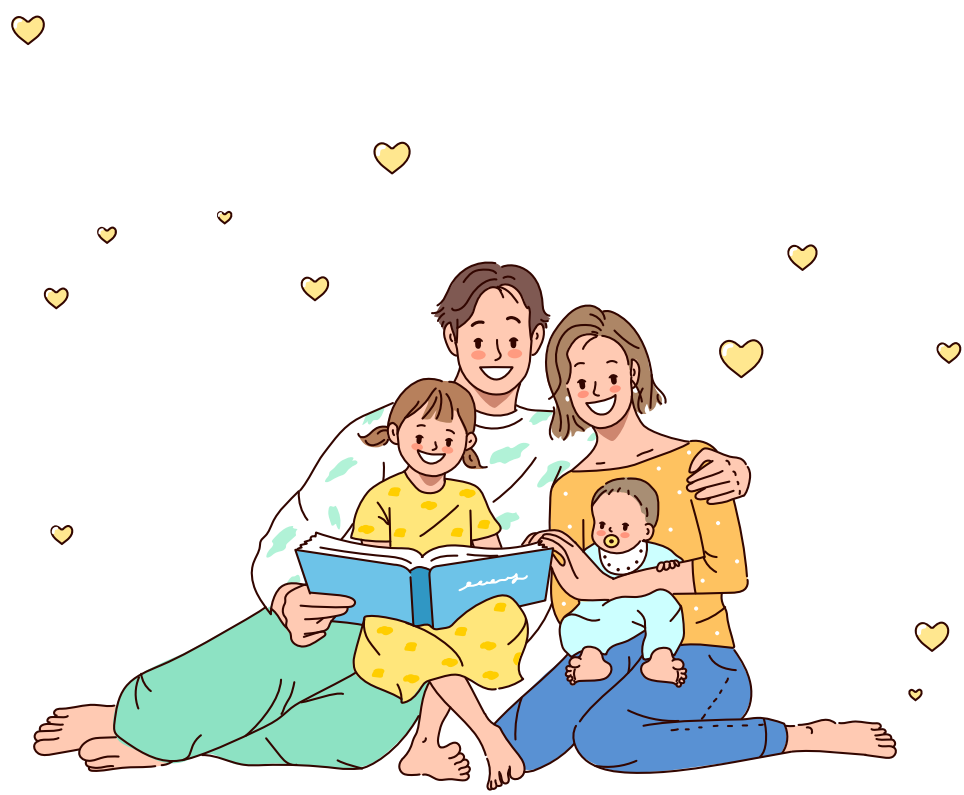
## 추진내용

- 병원들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추가 동참 설득
  - 난임전문병원, 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체외수정기술의 기회를 공익지원 함
  -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난임전문병원9, 기업3, 2008년)
-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모범적인 의료봉사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전국지역 25곳의 우수병원 협약
  - 연간 연100쌍 체외수정기술 지원하고 있음(난임전문병원25, 기업3, 2020년)

## 성과

- 사업명 :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체외수정기술비 지원사업) : 지속사업
- 지원사업 결과(기간 : 2008년 4분기 ~ 2021년 3분기)
  - 지원수혜자 : 894명 || 임신성공자 : 156명
- ▶ 파급효과
  - 공익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공헌의 실천
  - 난임가족 氣살리기 생명사랑 기여

## 참여병원





# 혼자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든든한 친구! 난임전문기관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난임의 모든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 난임교육센터

### 난임가정 DD맘을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입니다.

- ① 난임예방 및 난임극복교육
- ② 난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대응법·대처법 지도
- ③ 올바른 난임 극복을 위한 정보제공
- ④ 난임상담 등



## 주제 및 교육 내용

### ♥ 난임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계획임신 & 난임이란?

### ♥ 난임교육 및 상담

- 맞춤 난임시술 종류 및 시술방법 교육 등
- 난임 시술에 관한 정보 및 부작용 등
- 난임극복 교육 및 상담

### ♥ 병원 방문시 알아두세요

- 시술 실패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술 진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난임병원 처음 방문하는데 두려워요?

### ♥ 식습관 교정

- 건강한 난자 만들기 프로그램
- 미라클 식단
- 생활습관 다지기
- 난소기능 끌어올리기

### ♥ 같이 대안을 찾아봐요

- \* 동료 멘토링
- \* 소규모 자조모임
- \* 대안가족찾기 등

### ♥ 감정(마음)코칭

- 대처·대응방법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주변, 자기자신 등)
- 감정조절 훈련법 지도
- 명상 등

난임상담 ☎ 1899-1806 E : agaya505@naver.com

# •아가야

Column

| 난임예방 |

기다려야만 할까? 병원을 가봐야 할까? ... 116



## 기다려야만 할까? 병원을 가보아야 할까?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회장 박 춘 선

요즘은 결혼연령은 평균 30~32세를 웃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의 이유로 계획임신의 시간이 점점 방치되어지고 첫 아기를 만나는 시간은 점점 어려워지는 예비난임부부를 많이 봐왔다. 피임을 하지 않음에도 1년~2년 이상의 부부관계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뭔가 임신에 방해되는 원인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며 이에 관련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그만큼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쁘더라도 난임 병원을 방문하는 순서를 우선 계획해보자. 막연하게 이것저것 미루어 “더 기다려 보자”라는 마음 때문에 임신준비 검사 및 치료시기를 늦추게 되면 금방을 넘어 2~3년이 후다닥 지나간다. 그 즈음이면 나와 같은 시기에 결혼한 친구, 나보다 늦게 결혼한 직장동료, 시누이 등 주변인들은 부모가 되어 갈 때 본인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슬픔을 겪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보통 1년이내 85%가 임신을 하며 2년 이내에 95%가 임신을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너무도 복잡한 사회구조와 만혼, 먹거리로부터의 불안감, 환경호르몬,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첫 아이의 임,출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이렇듯 임신 준비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임신의 기회는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일정기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난임 병원을 초기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에는 남편도 같이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2012) 연구에 의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 원인불명의 난임이 70%이상으로 보고된 바 있다. 7쌍 중 1쌍은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처럼 난임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현재 상태나 시

간, 비용,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병원치료가 진행된다고 해서 원하는 시기에 한번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심리, 정서적인 부분, 스트레스 대처 및 마음력 돌봄 조절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 후 병원 방문을 결정하였다면 병원 내원을 통해 임신준비를 위한 충분한 상담과 난임 검사를 진행해보자.

### 🌸 먼저 난임 검사이다.

충분한 사전 조사 후 병원방문을 결정하자.

병원에 미리 전화 상담을 하여 방문 시간을 예약한다.

난임 검사를 위한 내원 시기는 보통 생리시작 2~3일 중에 방문을 안내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 날 때 방문하라고 상담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한 번 병원 방문으로 모든 검사가 한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난임의 검사는 보통 2~3달에 걸쳐 진행된다. 생리가 불규칙하다면 2~3달 정도 자기 기초체온 기록지를 작성하여 방문하면 배란의 유무, 생리주기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 🌸 여성의 검사

#### ○ 혈액검사

혈액검사는 배란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호르몬 검사와 난임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반 혈액검사가 있다.

- 생리 2~3일에 하는 혈액검사
  - 소변검사, 난포자극호르몬(FSH), 황체형성호르몬(LH), 갑상선의 유무, 난소나이(AMH) 등
- 생리기간 외에 하는 검사
  - 자궁난관조영술(일명 나팔관검사), 갑상선호르몬, 유즙분비호르몬 등
  - 난임시술 들어가기 전에 하는 혈액검사

#### ○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자궁과 난소의 기능 상태가 정상인지 배란시기를 예측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난임 치료 기간 중 난포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며 질식초음파를 통해 여러 차례 시행한다.

○ 나팔관 조영술

자궁난관 조영술이라고도 하며 자궁 안에 조영제를 넣고 X-ray 촬영을 통해 자궁과 나팔관이 뚫렸는지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개인차에 따라서는 아픈 검사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여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남성의 검사

○ 정액검사

정액검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검사 결과에서 정자의 질, 정자의 운동성, 정자의 양 등에 따른 결과뿐만 아니라 의외로 난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난임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고 난임의 치료 시기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검사 하자.

WHO정액 검사 기준치(2010년)

구분	수치
정액량	1.5cc이상
정자 수	3천9백만개 이상
1cc이상 정자수	1천 5백만개 이상
운동성	40%이상
정상적인 모양	4% 이상

 난임예방을 위한 식생활습관은 매우중요한 일상의 패턴 

본 단체는 난임극복 통합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자에 한해 지도·조력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다. 그만큼 식생활습관이 정착되지 못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따라해 성공사례를 접할 때면 기쁨과 난임부부의 피나는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최상의 몸 상태와 여유로운 마음과 정신, 좋은 식단, 운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식사는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단체에서는 난임극복을 위한 첫 번째 루틴으로 아침식사와 스트레칭을 추천한다. 된장, 계란, 생선 등의 단백질의 섭취와 최적의 생식 환경 유지를 위해 좋은 지방산의 섭취와 야채와 과일, 수산물, 콩류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자. 이것은 생식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자궁 내막의 착상 환경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 성분이 첨가된 식품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떤 균형적인 것으로 보충 할 것인지,식이습관이나 보충제의 섭취 여부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자. 특히 비만이나 과소체중, 착상환경을 방해할 수 있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기호식품 등의 섭취는 임신의 기회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계획임신 전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는 매월 DD맘의 날(D라인 Dream맘)을 정하여 동료모임 및 난임교육이 열리는데 참가자 중에는 교육을 잘 듣고 따라서 임신,출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

 스스로 지키기 10가지 생활 수칙 

1.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잔과 스트레칭, 2시간 이내에 충분한 아침을 먹자.
2. 최소한 과일, 야채, 채소, 수산물을 챙겨 먹자.
3. 매 끼니에 단백질 및 생선을 섭취하자.(콩, 견과류, 생선 등)
4. 고단백 저탄수화물선택으로 소화가 쉬운 통곡물류를 선택하자.
5. 건강에 좋은 지방에 집중하자.(들기름, 아마씨유, 올리브유 등)
6. 최소한 매일 1.5L이상~ 2L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자.
  - 단, 음주,음료수, 커피는 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7. 저녁 식사 후 어떤 것도 먹지 말자.
8. 생식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식건강 비타민제를 추가한다.
9.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라
  - 그래야 체온이 올라가고 몸속의 냉기가 빠진다.
  - 운동은 생식능력에 도움이 된다.
  -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10. 밤 10시부터 첫 잠을 잘 자자. 꿀잠이 보약이다.

# 아기가야

Sponsor  
| 후원자 |

후원 참여 방법 ..... 122



후원 참여방법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후원자가 되시면 나눔의 행복을 11·11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11일은 부부가 자녀 둘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의미의 생명사랑을 응원하는 날입니다. 난임은 어렵지만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가야보듬이(체외수정)지원사업을 위해 둘째. 한소공 1박2일 힐링캠프 지원사업을 위해 셋째. 아가야 프로그래너시 지원사업 위해 넷째. 난임교육 및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다섯째. 아가야보듬이(한방)지원사업을 위해 여섯째. 난임인식개선 캠페인을 위해 일곱째. 전국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위해 여덟째. 8주헬스 통합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아홉째. 정책연구개발지원사업을 위해

후원은 이렇게 해주세요

CMS 자동이체란 무엇인가요? CMS 자동이체는 금융결제원이 은행과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협조로 기부자의 계좌에서 약정하신 기부금만큼 인출하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홈페이지 www.agaya.org 팩스 : 02-3431-3383 이메일 : agaya505@naver.com

후원 입금 : 국민은행 434701-01-208654 예금주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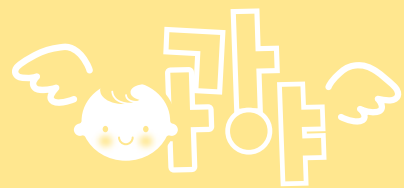
※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부금지정 단체입니다.

정기후원 단체/기업



정기후원 개인 나눔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미숙 강옥순 강은미 강은영 강정은 강혜림 강희영 고경준 고인애 고정보 고혜원 곽은정 곽철원 구미숙 권승희 권순빈 권용대 권희연 길은주 김경인,김경환 김경희 김근영 김남수 김남의 김대기 김동국 김동우 김례아 김명희 김미나 김미연 김미정 김민조 김범규 김병환 김보민 김부임 김상열 김석률 김선기 김선미 김선연 김선정 김성남 김성미 김성훈 김세경 김세영 김소정 김수진 김수진 김시직 김신애 김애이 김연옥 김연희 김연희 김영 김영득 김영미 김영선 김영선 김영숙 김영희 김옥현 김외옥 김용귀 김용훈 김윤식 김윤정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신 김은주 김은진 김은하 김일우 김재천 김재호 김정수 김정숙 김정애 김정우 김정은 김정희 김종대 김종만 김종석 김주희 김지수 김진호 김진화 김창구 김천봉 김태현 김한누리 김해자 김현미 김현진 김협 김형기 김혜정 김혜정 김호경 김홍래 김화선 김환 김효선 나미연 나용민 남궁정식 남주형 남지애 남희선 노연희 노영주 노지영 류원재 류희조 명혜정 문미란 문성대 문인숙 문인희 문정현 문화숙 민경희 민병엽 민혜영 박건선 박경애 박근배 박미연 박미향 박미혜 박범준 박병무 박상미 박선영 박선희 박성진 박성진 박성희 박세나 박세란 박소영 박수경 박수진 박순영 박승배 박시용 박시현 박영관 박영주 박원엽 박은숙 박은실 박은주 박은희 박재홍 박점자 박주영 박지수 박지영 박지현 박지훈 박지희 박진 박진석 박춘선 박하균 박현자 박현진 박홍식 박희경 박희숙 방정호 배동일 배성욱 배시연 배유진 배인화 배정순 백경미 백상열 백은정 백정임 백철호 변이나 비셋알렉산더 서민정 서수형 서정숙 서지민 손미경 손지영 손진아 송봉석 송은아 송정순 송주영 송준호 송지민 송창열 송현주 신미란 신상희 신순옥 신정섭 신정일 신종백 심민선 심민선 심수미 심정수 심효연 심효진 씨애틀코리아 안경수 안병헌 안성주 안은미 안정은 안정은 양선경 양승일 양준기 양지훈 양혜림 양혜순 엄미향 엄진영 여현경 연복모 예병완 오미경 오상아 오옥순 오은애 오정민 오지혜 오현주 우원실 유기은 유미영 유상균 유선영 유선영 유선희 유숙경 유순이 유정민 유지숙 유진선 유진열 유진열 유준화 유태영 유화진 유희철 유희선 윤보라 윤수영 윤승현 윤연진 윤영삼 윤정호 윤종훈 이현주 이근욱 이경은 이경진 이경희 이금숙 이나경 이동혁 이명아 이명희 이미은 이병선 이서영 이선화 이선화 이세희 이소연 이소영 이수진 이승미 이승백 이승한 이승환 이승환 이안나 이애리 이영주 이예진 이용환 이우화 이운영 이원정 이원경 이윤희 이은미 이은영 이은자 이인실 이재광 이재성 이재용 이재은 이재철 이재환 이재훈 이정미 이정민 이정수 이정애 이정욱 이주혁 이지연 이지영 이지해 이지형 이지혜 이충원 이태원 이현수 이현아 이현정 이혜란 이흥주 일호시스템 임미숙 임복희 임은주 임은혜 임혜신 장미라 장미화 장선화 장수아 장영윤 장은영 장은영 장은정 장현정 장혜선 장효진 전보현 전선애 전승윤 전인호 전종원 전종섭 전현주 전홍준 정경미 정경술 정상환 정석구 정세희 정수민 정영우 정유미 정유정 정은경 정은병 정인숙 정재홍 정주화 정진영 정태조 정해용 조경애 조미선 조성삼 조수연 조영애 조영환 조은주 조인주 조인화 조정은 조지수 조현 조현미 조혜경 조혜정 조혜진 주은주 주진경 지성희 차은정 차지연 천미화 천정우 최경숙 최대환 최미진 최상우 최승용 최영미 최은식 최은지 최재선 최정화 최진철 최창기 최해역 최현숙 최혜선 추정희 하은주 하희정 한광민 한명숙 한미정 한성호 한우정 한현근 허국화 허미숙 허미정 허재혁 허혜영 현재희 홍성규 홍원준 홍윤미 홍은주 홍재희 홍정현 황영경 황영희 황원영 황혜정 황혜진 비공개 후원자 등



난가연은 난임가족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주)아이젠파마코리아는**

새 생명의 탄생과 난임 임신부의 건강에 책임을 다하는  
**차별화된 난임 치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난임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 ✓ Swiss 세계 최초 수용성 프로그스테론 피하주사(자가주사 가능)를 허가, 판매
- ✓ UK 프로그스테론 질좌제(since 1996)를 국내에서 단독 판매
- ✓ 전문화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으로 난임 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화
- ✓ 난임 치료 효과와 안전성, 사용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제품 개발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사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Society's Happiness" 시행



(주)아이젠파마코리아는 한국컴패션, 플랜코리아,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등과 후원을 함께 합니다.

탄당~  
탄당~

과산통, 걱정말고

# 몸과 마음도 쉬어야 해요~

부부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난임 개선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힐리언스 선마을에서의 건강한 4대 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 4대습관 : 운동, 마음, 생활리듬, 식습관

예약상담 : 1588-9983  
 www.healience.com





# 2021 서울시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사업



**목적** :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학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유도함.

**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을 받고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 난임부부 공통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법적, 사실혼 관계  
 · 여성나이 : 만 41세 이하(1979년 이후 출생자)  
 ※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 사업시행 및 인원

- 사업시행 : 2021년 4월 ~ 마감시까지
- 모집인원 : 해당 자치구당 30명 내외

**지원내역** : 한의학 난임치료(3개월) 협약비용 약 120만원(본인부담금의 90%)  
 ※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신청방법** : ①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회원가입 및 사전 선별검사 실시  
 ② 지원신청 : 부부(여성이 신청) 또는 여성(남성) 단독 신청  
 · 온라인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 방 문 : 거주지 보건소

**문의** : 해당자치구 보건소, 120(서울시 다산콜센터) 및 서울특별시한의사회(02-960-0811)



세심한 병력 청취와 섬세하고 품격있는 진료를 자랑하는  
**프라이빗한 난임클리닉입니다.**

모든 난임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철학을 갖고, 꼼꼼한 검사와 병력 청취, 생활습관 변경을 기본으로 우수한 실력의 의료진과 배양시설을 갖추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서울라헬여성의원은 '근본적 차이를 이루는 가치', '환자 중심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ur passion, your health  
 고객을 향한 새로운 50년을 시작합니다



동국제약이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께 한 발 더 다가옵니다

‘드’와 ‘구’로 이루어진 Human Care Frame과 글로벌 브랜드 ‘동국’을 상징하는 중앙의 워드마크, 밝고 건강한 미래를 의미하는 브랜드 컬러, Green과 Blue. 그리고 신뢰와 정중함을 의미하는 Deep Blue까지! 동국제약이 새로운 디로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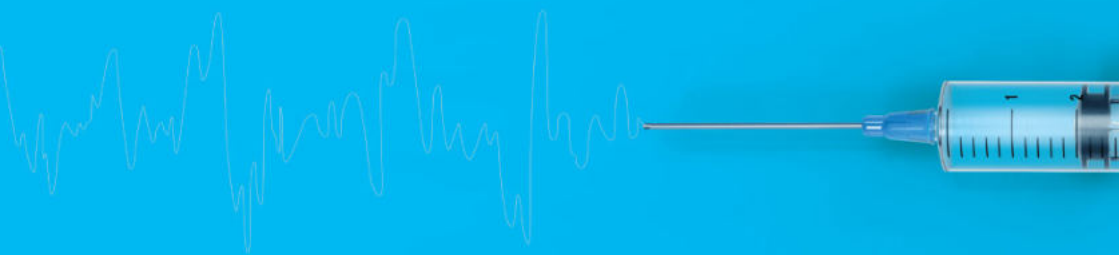
Do it!  
 솔가



수입판매원: 한국솔가(주)

# 생명공학이란 생명보험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드는 일

[ 제약업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 생명공학 R&D 센터 설립 ]



누군가의 백세 인생에 백신을 만들어 주고, 누군가의 혈액에 면역을 불어 넣습니다.  
어려운 치료를 쉽게 도와 주고, 아픈 이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  
우리에게 생명공학이란 이 모든 위대한 도전을 하루도 쉬지 않는 것.

세계를 향한 위대한 도전, GC녹십자가 이어갑니다.

Great Challenge



GC 녹십자